

경애하는 김정은 최고령도자께서

조선인민군 록해공군합동타격훈련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최고령도자께서는 조선인민군 록해공군합동타격훈련을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국가, 무력기관 책임일꾼들, 도당책임비서들, 평양시안의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 성, 중앙기관, 과학, 교육, 문화예술, 보건, 출판보도, 국방공업부문의 일꾼들이 훈련을 참관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최고령도자께서 훈련장에 도착하시자 록해공군장병들과 참관자들은 선군혁명령도를 어버이장군님을 위한 위대한 복부로 여기시며 장군님의 넋과 숨결, 체온이 그대로 어려있는 인민군대를 이끄시고 사회주의조국을 굳건히 수호해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서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서는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으로 부터 영접보고를 받으신 다음 전방대에 오르신였다.

훈련진행계획과 타격부대들의 배치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들으신 최고령도자께서는 훈련을 시작할때 대한 명령을 주시였다.

구령이 내리자 훈련장은 불시에 불타는 화약마냥 활화산같이 노호했다.

하늘을 썰며 급강하하는 비행대들과 물갈기를 세차게 날리며 전진하는 영웅한 해군함정들에서 중오와 복수의 명중탄이 뿜어졌고 일제사격의 장쾌한 포성을 터친 포연자욱한 포진지들에서도 시벨린 불꽃들이 련속 날아가 《적합선집단》에 섬멸적타격을 가했다.

쌓이고 쌓인 분노의 분출인듯 위력한 화력타격수단들의 위뢰같은 폭음과 포

성이 하늘, 땅, 바다를 진감하였으며 일당백 싸움군들은 각이한 정황속에서도 말은 입무를 붙이 번쩍 나게 능숙히 수행하면서 《적진》을 단숨에 타고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서는 초저공, 급상승, 각이한 회전을 진행하는 비행사들의 과감하고 슬기로운 비행술을 보시고 대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의 훈련성과를 치하하시였다.

훈련은 침략자들이 우리 공화국의 신성한 하늘과 땅, 바다를 0.001mm라도 침범한다면 단호히 맞받아나가는 도발자들의 머리에 불벼락을 안길데 대한 위대한 선군령장의 명령을 심장깊이 새기고 억척같이 다져온 우리 혁명무력의 대응타격의 본매를 과시하였다.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은 이제 당

장이라도 명령만 내리면 즉시적이고 강력한 타격으로 역적패당이 다시는 우리의 최고존엄을 모독하고 우리의 존엄높은 체제를 헐뜯지 못하도록 원수의 본거지를 흔적도 없이 쓸어버릴 인민군장병들의 비상한 각오와 전투정신을 잘 보여주었다.

혁명적신념과 배짱의 최고화신인신 회세의 천출명장 경애하는 김정은 최고령도자를 닮은 영웅적조선인민군의 무적필승의 기상을 만천하에 떨친 훈련은 가슴후련히 결속되었다.

참관자들은 전투훈련을 보면서 백두산혁명강군의 타격강도와 타격계선에 한계가 없으며 우리 식의 성전, 우리 식의 보복타격에서 살아남을 원수는 이 땅, 이 하늘아래 단 한놈도 없다는것을 가슴부듯이 통쾌하게 새겨안았다.

경애하는 김정은 최고령도자께서는 주체전법을 빛나게 구현한 훈련이 성과적으로 진행되는데 대해 만족을 표시하시고 인민군대를 백전백승의 혁명무력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의 손길아래 억척같이 다져진 강철의 정예대로, 무적의 대군인 영웅적조선인민군이 지켜서있기에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는 불패의 보루로 영원히 솟아 빛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최고령도자께서는 인민군장병들이 조국의 안전과 인민의 행복을 총대로 견결히 수호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 최고령도자께서

초도방어대와 조선인민군 해군 제123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최고령도자께서는 서해안전방초소를 지키고있는 초도방어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최고령도자께서 도착하시자 군인들은 파도사나운 초도의 풍랑길을 헤치시며 자기들의 초소에 찾아오시였던 어버이장군님의 사랑을 그대로 안으시고 멀고 험한 초도방어대에 시찰의 자욱을 새기시는 최고령도자를 우러러 폭풍같은 《만세!》를 목메여 불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초도의 군인들에게 뜨거운 답례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최고령도자께서는 초도방어대의 군인들이 사회주의조국을 수호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언제나 자랑찬 군공을 떨쳐가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시면서 방어대에 쌓인경과 자동보총을 찍으시시며 주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군인들에게 손을 저어주시며 걸음을 옮기시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서는 병영밖에서 감격에 겨워 발을 동동 구르며 《만세!》를 부르는 군인가족들을 보시고 그들을 곁으로 불러주시였다.

몹만 같은 행운에 접하여 눈물로 두볼을 적시는 군인가족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서는 지휘관들의 안내를 받으시며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서는 이어 가파로운 언덕길을 뚫으시며 높은 산정에 자리잡고있는 전방지휘소에 오르신였다.

최고령도자께서는 방어대장으로부터 정황보고를 들으신 다음 방어대가 담당하는 드넓은 방어진역을 바라보시면서 지형지물과 역량배치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방어대지휘관들과 군인들이 조선로동당의 주체적인 군사전략전술사상과 전법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초도를 적들의 어떠한 불의의 침공과 화력타격에도 끄떡하지 않는 요새로 다지였으며 린점부대들과의 협동을 잘하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서는 전방지휘소에 세워진 어버이장군님의 현지도도표 식비앞에서 부대관하 중대군인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서는 이날 군인회관, 도서실, 식당을 돌아보시면서 섬초소군인들의 생활을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섬초소군인들은 점심식사시간으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러서야 시찰을 마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서는 지휘관들에게 초도를 동무들에게 말한다고, 건강하여 싸움준비완성에서 더 큰 성과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최고령도자께서는 오종훈7련대지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해군 제123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어둠이 가시지 않은 이른새벽 머나먼 길을 달려 군항에 도착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서는 구잠함 202호를 타시고 군부대를 향해 풍랑길을 헤쳐가시면서 함선의 무장장비상태와 해병들의 전투동원준비상태를 료해하시였다.

최고령도자께서는 함의 모든 해군지휘관들과 해병들이 싸움준비를 철저히 갖추기 위한 투쟁에 박차를 가하여 조국의 바다를 튼튼히 지킬수 있는 무적의 전투대로로 자라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군항에 닿을 내린 구잠함에서 내리시는 최고령도자를 우러러 부두와 함선들에 줄지어 늘어선 해병들이 터치는 《만세!》의 폭풍같은 환호성이 땅만한 대해로 울려 퍼지였다.

최고령도자께서는 감격의 눈물을 머금으며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해병들앞을

지나시며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서는 지휘관들의 안내를 받으시며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의 손길아래 군부대가 걸은 빛나는 전투행로를 헤아려주시였다.

함선에서 주의깊게 보신 조타수의 손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기계를 다루는 데 불편하다고 장강을 끼지 않는 일이 없게 하라고, 해풍이 손이 뜨지 않게 대책을 세워주라고 하시면서 추운 날씨에도 찬 바다물에 손을 적시고 전투기술기계를 다루고있는 해병들을 위해 은정같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세상을 놀래운 서해해전사가 보여주듯이 우리 해병들의 사상정신상태가 대단히 좋다고, 그들은 조국과 인민을 수호하기 위해서라면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치는 당과 혁명의 귀중한 보배들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서는 군인회관, 도서실, 병사원, 부식물창고, 가공장 등을 돌아보시면서 해병들의 정치사상교양사업상태와 생활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최고령도자께서는 군부대해병들이 조국의 바다를 더욱 믿음직하게 지켜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서는 걱정을 금치 못하는 해병들에게 손을 저어 답례하시고 떠나시기 위해 군항으로 나오시였다.

군항에 정박하고있는 채정보영호호를 돌아보시고 해병들에게 뜨거운 사랑을 안겨주시는 최고령도자께서는 군부대의 운전수들을 곁으로 부르시어 기념사진을 찍고싶어하는 그들의 마음속소원도 헤아려주시였다.

군항에 펼쳐나온 해병들은 구잠함 202호를 타시고 떠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를 걱정속에 바래드리였으며 최고령도자를 호위하여 따라서 정물에서도 《만세!》의 환호성이 그칠줄 몰랐다.

최고령도자께서는 바람새찬 함지휘소에 오래도록 서시어 해병들에게 손저어주시였다.

군항에 도착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서는 구잠함 202호의 해병들을 한품에 안으시고 그들과도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본사기자

조국소식

개건된 락랑감자가공공장 준공식 진행

평양의 통일거리에 현대적인 감자가공기지가 일떠섰다. 연건축면적이 8 000여㎡에 달하는 락랑감자가공공장은 모든 생산공정이 최신식설비들로 그쯘히 갖추어져있으며 많은 량의 감자를 과학적으로 보관할수 있는 훌륭한 저장고도 건설되었다. 공장이 개건됨으로써

생산능력이 대폭 향상하고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크게 이바지할수 있게 되었다. 개건된 락랑감자가공공장 준공식이 8일에 진행되었다. 준공식에는 리무영 내각 부총리, 관계부문 일꾼들, 건설자들, 공장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참가하였다. 준공사를 조영철 식료일

용공업상이 하였다. 연설자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식료공업발전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며 당의 은정어린 감자가공기지가 더 큰 은을 내도록 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개건된 공장을 돌아보았다.

본사기자

남조선에서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후행이 있을 때로부터 30년이 되어온다. 남조선에 무겁게 드리운 식민지장막에 파렐구를 내며 힘차게 떠오른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후행은 수십년에 걸친 미국의 식민지강점정책에 대한 쌓이고 쌓인 인민들의 분노와 울분의 폭발이었으며 짓밟힌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되찾기 위한 의롭고 강한 투쟁이었다. 광주대 학생만행

을 통하여 침략자, 강점자로서의 미국의 정책을 똑똑히 간파한 남조선의 애국적인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은 1982년 3월 18일 가슴스러운 부산 《미국문화원》에 불을 지르고 시내 도처에 수많은 반미비라들을 뿌리였다.

《양키는 물러가라!》, 《미국의 식민주의를 규탄한다!》, 《반미투쟁의 불길을 들자!》

악마의 소굴에서 라래쳐오는 불길과 함께 배아에 쬐여진 힘있는 글발들은 남조선인민들의 반미애국의지를 내외에 힘있게 과시한 장거리로 침략자들과 그 주구들

을 공포에 떨게 하였다. 부산에서 떠오른 함정의 난미의 불꽃은 그후 온 남남에 타버려 미국의 식민지통치를 밀부리체 후손들에게 물려주었다. 그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으나 투쟁참가자들이 절규하며 념원했던 자주, 민주, 통일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외세의 지배와 간섭은 그

어느때보다 우심해지고있으며 보수집권세력의 파쇼통치속에서 인민들의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 생존권은 무참히 짓밟히고있다.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송두리체 팔아먹는 리명박보수 《정권》의 친미사대매국정책으로 말미암아 인민들이 당하는 고통은 더욱 크다.

집권초기부터 《한미동맹관계우선론》을 주요 《외교정책》의 하나로 내세운 현 보수집권세력은 상진이 요구하는대로 사람들의 생명에 위협을 주는 미국산 미친소고기를 남조선에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는 망랑짓을 서

슴지 않았다. 그뿐 아니라 미국이 없으면 큰일날것처럼 떠들면서 《전시작전통제전환》 시기를 연기하고 미군유지비와 미군기지전비용을 더 많아나서면서까지 남조선강점 미군의 영구주둔을 애걸하였다. 어디 그뿐인가. 미국의 《핵우산》 구걸, 아프가니스탄과병늘음, 남조선미국 《자유무역협정》 체결,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전범참가, 제주도해군기지건설강행, 미군의 병적적사실들에 대한 합구무연 등 민족의 존엄과 리의를 해치는 리명박 《정권》의 사대매국행위를 렬거하자면 끝이 없다.

역적무리들의 이러한 친미굴종행위가 얼마나 역겨웠으면 남조선 각계와 언론들이 《미국의 삼살개》, 《간도정책》의 하나로 내세운 현 보수집권세력은 상진이 요구하는대로 사람들의 생명에 위협을 주는 미국산 미친소고기를 남조선에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는 망랑짓을 서

선적대시정책에 적극 편승해나서는데서 절정에 이르렀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지적된바와 같이 우리 민족끼리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을 통일하고 나라의 부강번영을 이룩하는것은 7천만 겨레의 환결같은 지향이고 의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명박 《정권》은 일도당도않은

습이 광범히 벌어지는 속에 감행된 공화국의 최고존엄에 대한 중상모독행위가 과연 무엇을 노리고 진행되었는가 하는것은 삼척동자도 알 일이다. 평화를 바라는 민족의 지향에 배치되게 외세와 야합하여 이 땅위에 핵전쟁의 불기름을 몰아오려는 전쟁미치광이들의 극악한 대결말동이야말로 천추에 용납 못할 사대매국적행위가 아닐수 없다.

민족의 안전과 생명을 제물로 삼겨지며 침략적인 외세와 공모결탁하는 이런 가증스러운 매국노들이 살판치고 있는것은 실로 민족적수치가 아닐수 없다. 현실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송두리체 팔아먹는 리명박역적파 같은 매국노가 있는 한 남조선에 대한 미군의 강점은 장기화되고 인민들이 바라는 자주, 민주, 통일념이 감행하지 않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미국의 식민지통치를 끝장내고 반역무리를 심판하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 환결같이 일떠서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김철호



관문점에 새겨진 령장의 통일 의지



지금 온 겨레는 얼마전 령사의 땅 관문점을 찾으면서 대결과 분렬의 장벽에 파열구를 내며 뜻깊은 통일외침을 울리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에 대한 한없는 감사의 정에 겨워 그이의 거룩한 관문점시찰의 의미를 되새겨보고있다.

이번에 진행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의 관문점시찰은 려사로운 시찰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위업수행의 길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려사적인 사변이다.

돌이켜보면 관문점은 우리 겨레의 분렬의 한이 짙게 서렸있는 곳이고 통일열망이 모아지는 곳이다.

이곳은 군사적으로도 쌍방의 방대한 무력이 대치하고있는 첨예하고 가장 긴장한 지역이다.

1970년대 관문점사건을 비롯한 적들의 무분별한 관동과 도발책동으로 몇번이나 전쟁이 터질뻔한 관문점은 폭약의 도화선과도 같이 항시적인 긴장과 불꽃튀는 정적속에 날이 밝고 해가 지는 위험한 열점지대이다.

민족의 단합과 통일에 이바지하고자 북을 다너온 남녘의 수많은 인사들이 이곳에서 체포, 투옥되었고 민족의 어머니를 잃은 크나큰 슬픔을 안고 북을 찾아오던 남녘동포들의 조문길도 여기서 막히었다.

더우기 민족의 최고존엄을 증상모독한 리명박적대당의 반인륜적대죄를 추호도 용서없이 징벌하려는 천만군민의 분노가 활화산처럼 타오르고있는 지금 관문점은 절여가는 봄계절의 따뜻한 훈향마저도 걸음을 피해가는 려쟁의 등토대이다.

분렬의 상징 관문점을 통일의 상징으로 만드시려고 온갖 로고

를 다 기울여 오신 위대한 김정은장군님의 뜨거운 승결과 거룩한 발자취가 어리여있는 려사의 땅에 경애하는 김정은 최고령도자께서도 현 지시찰의 자욱을 새기시었다.

임의의 시각에 실전으로 넘어갈수 있는 미국과 남조선 호전세력의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한창 벌어지는 때에 관문점을 시찰하시고 관문가로대까지 나가시여 쌍안경으로 적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는 강인담대한 령장의 모습에는 그 어떤 광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억척분변의 기개와 용맹이 나래치고있었다.

한때에 적들이 코앞에 바라보이는 로대에 서시여 작전적구상을 면밀히 세워주시고 병사들과 함께 사진도 찍으신 배포유한

그이의 모습에는 총대로 굳건히 사수되는 조국과 민족의 존엄, 무궁변영할 래일이 비껴있었다. 주제85(1996)년 11월 24일 위대한 김정은장군님의 관문점시찰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일찌기 민족수난의 시기에 보친

보의 밤하늘에 민족재생의 화불을 지펴주시고 같은 사변적의를 가지는 려사적인 패거였다 그것이 세인의 평이다. 그때 통일의 원수들은 당장 발

밑에서 북조선의 원자란이 러지 는것 같은 충격을 받았고 심장에 칼을 박은듯 한 느낌을 받았다고 역적대당의 반인륜적인 허스레리광기로서 나라의 정세가 각

3대헌장을 비롯한 통일의 앞길을 밝히는 불멸의 대강들이 태어난 유서깊은 이곳을 뚜렷이 마음속에서 새겨두시려는듯 병사들과 천

불멸의 그 화폭에는 어머니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필생의 념원이었던 조국통일위업을 기어이 성취하고야말 결사의 통일외침이 어려있었다.

불과 불이 맞부딪치는 첨예한 최전방에까지 나오시여 불과 수십m앞의 남녘땅을 쌍안경으로 바라보시는 그이의 안광에서는 통일된 삼천리강산을 후대들에게 물려주고야말 굳은 결심과 의지가 뿜어져나왔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관문점시찰소식은 온 겨레에게 통일에 대한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고 적들을 전멸케 하였다.

하기에 남조선의 한 군사전문가는 인터넷신문 《자주민보》에 게재한 자기의 글에서 《미국이 신물이 날 지경으로 자랑하고 일부 《한국》인들이 철쭉같이

정찰위성, 고공기구, 전자정찰기들은 다 뭘 했던 말인가? 시찰이 어느날 진행됐는지 이번 공개는 분명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연습들을 겨냥한 반격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날뛰어도 우리의 움직임을 전혀 모르고 어찌불수는 더욱 없다》는 식의 강력한 배짱이다. 김정은최고사령관의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특별히 귀중한 구절이 없는데 필자가 볼 때 《강경 자체를 물거품만들기》라면 비슷하지 않을가싶다.》라고 했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관문점시찰은 어머니수령님과 위대한 김정은장군님의 념원으로 삼천리강토에 하나된 조선을 유혹 세우시려는 철의 의지의 선언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를 조국통일위업의 진두에 높이 모시여 온 겨레의 숙원인 자주통일 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본사기자 리경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이번 관문점시찰시에 조국의 남쪽관문을 철웅성같이 지켜서고있는 전초병들을 친히 만나주시었다. 전투군무를 마친 그들의 미더운 모습을 바라보시며 모두가 끌끌하라고, 보고싶었다고, 이렇게 만나니 반갑다고 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불과 몇십m밖에는 군사분계선이 가로놓여있고 적들이 총검을 번득이며 내 조국을 침략할 도발의 기회만 노리고있었다.

그속에서 어머니수령님의 통일천필비를 배경으로 하여 최고사령관과 전사들이 일심일체가 되어 찍고 또 찍은 그날의 기념사건이다.

그것은 보통의 현지시찰사건이 아니었다. 최고사령관과 병사들이 어깨고 팔을 끼고 친접한결의 성벽을 이룬 인민군대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숭엄한 화폭이었다.

이 날 경애하는 김정은 최고령도자께서는 전초병들이 조국의 관문을 철벽으로 지키고있기에 우

리 인민이 발원점을 자고 최고사령관도 마음이 든든하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는 관문점을 지켜선 동무들을 굳게 믿는다는 최상의 신임을 안겨주시었다. 전쟁위험이 짙게 떠도는 이 시각 뜻밖에도 위험천만한 관문점에 나오신 최고령도자를 만나뵈은 전초병들은 뜨거운 걱정과 눈물을 흘리며 최고사령관을 목숨바쳐 지켜갈 맹세를 담아

《만세!》를 부르고 또 불렀다.

이 날 경애하는 김정은 최고령도자께서는 관문점을 지켜선 전초병들의 병설, 식당, 체육관을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시었다.

침실에 들리시여서는 이만 하면 괜찮다고, 하지만 전초병들에게 더 좋은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병영을 더욱 번듯하게, 훌륭하게 꾸려주시고 말씀하시었다. 그러시고는 군복과 근무용신발을 주의깊게 보아주시며 질이 어떤가를 알아보

시었고 세상에서 제일 멋있고 피부를 마련해주자고 말씀하시었다. 식당에 들리시여 일일량식공급규정표를 보시고 후방공급실태를 알아보신 최고령도자께서는 군인들에게 공급되는 담배도 몸소 피워보시며 질을 가능해 보시었다.

김이 문문 나는 취사장에서 전초병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가, 평균나이는

얼마인가를 알아보시고 취사원들이 고향집어머니시절으로 그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복무하기를 부탁한다. 동무들에게 그들을 맡긴다고 말씀하신 그이의 국지한 사랑은 자식을 위해 원심을 기울이는 친부모의 정 그대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는 열화같은 사랑과 친화력으로 선군의 길, 애국헌신의 길에 송고한 인간사랑의 화폭을 새기시는 성인중의 성인, 인덕의 최고화신 이시다.

최고사령관과 전사들의 관

계가 명령과 복종의 관계가 아니라 부모와 자식처럼 혈연적유대를 이루고있기때문에 최고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혼연일체는 것처럼 순결하고 공고하며 그 위력은 무한대한것이다.

조국수호의 선군장정을 병사들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으로 이어가시는 최고사령관의 송고한 덕망에 감격하여 어린 역대우같은 장병들이 주먹으로 눈물을 훔치는것이며 최고사령관의 명령이 라면 물과 불속이라도 서슴없이 뛰어드는것이다. 그래서 자기의 최고수뇌부들 감히 건드리는데 그 어떤 경계망동에 대해서도 추호도 용납하지 않으며 한몸이 그대로 성세, 방패가 되어 결사옹위하고있다. 오늘 이 시각도 용감무쌍한 맹호가 되어 자기의 생명이며 민족의 존엄인 북조선위인들을 증상모독한 만고대죄를 지은 남조선역적대당을 무자비한 불도 똑같은 질문을 받았는데 구차하지만 변명구실은 있었다. 그날 따라 질게 긴

간 령철

《김정은최고사령관의 대응방식》

최근 남조선인터넷신문 《자주민보》는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관문점시찰과 관련한 글을 게재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정은최고사령관이 관문점을 다녀갔는데 상대방은 뭘 하고있었느냐? 왜 물렀느냐?

1996년 11월 24일 김정은최고사령관의 관문점시찰은 조선이 사후회에 공계했다. 처음에는 그게 진실이라는 의문도 제기됐으나 김정은최고사령관이 관문점에 세워진 김일성주석의 천필비앞에서 찍은 사진이 유력한 증거로 되어 질문들은 속 들어가버렸다. 대신 나온 질문이 왜 물렀느냐이다. 그대 《유엔군》감독 투름 쓴 미군도 《한국》군도 똑같은 질문을 받았는데 구차하지만 변명구실은 있었다. 그날 따라 질게 긴

하나 이번은 다르다. 김정은최고사령관은 분명 환한 대낮에 관문각로대에 쌍안경을 들고 바라보는 사진을 남겼다. 그것도 혼자 아니라 장령들과 관문점경위병들과 함께이다.

그만큼 관문각은 남쪽에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대상으로 여겨지곤 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김정은최고사령관은 분명 환한 대낮에 관문각로대에 쌍안경을 들고 바라보는 사진을 남겼다. 그것도 혼자 아니라 장령들과 관문점경위병들과 함께이다.

그만큼 관문각은 남쪽에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대상으로 여겨지곤 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김정은최고사령관은 분명 환한 대낮에 관문각로대에 쌍안경을 들고 바라보는 사진을 남겼다. 그것도 혼자 아니라 장령들과 관문점경위병들과 함께이다.

그만큼 관문각은 남쪽에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대상으로 여겨지곤 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김정은최고사령관은 분명 환한 대낮에 관문각로대에 쌍안경을 들고 바라보는 사진을 남겼다. 그것도 혼자 아니라 장령들과 관문점경위병들과 함께이다.

그만큼 관문각은 남쪽에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대상으로 여겨지곤 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김정은최고사령관은 분명 환한 대낮에 관문각로대에 쌍안경을 들고 바라보는 사진을 남겼다. 그것도 혼자 아니라 장령들과 관문점경위병들과 함께이다.

그만큼 관문각은 남쪽에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대상으로 여겨지곤 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김정은최고사령관은 분명 환한 대낮에 관문각로대에 쌍안경을 들고 바라보는 사진을 남겼다. 그것도 혼자 아니라 장령들과 관문점경위병들과 함께이다.

이. 《적들이 총을 내대면 우리는 대포를 내대고 적들이 칼을 빼들면 우리는 장검을 휘두른다.》는 것이다. 휘어짜면 바로 조선이 강조해온 《강경에는 초강경으로》이다.

김정일위원장에 대해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조선이 수없이 곱씹은 말이 특징적이다.

《적들이 총을 내대면 우리는 대포를 내대고 적들이 칼을 빼들면 우리는 장검을 휘두른다.》는 것이다. 휘어짜면 바로 조선이 강조해온 《강경에는 초강경으로》이다.

선대지도자들이 닦아놓은 토대가 튼튼하기에 김정은최고사령관으로서의 굳은 의지와 실력을 과시할 필요가 없고 인력과 물력을 들이지 않거나 적게 들이면

서 적수들의 의도를 좌절시키는 방식을 쓸 현실성이 다분해졌다.

김정일최고사령관의 《초강경》이 상대방이야 어떻게 나오든지 물밀어 더 강한 방식으로 눌러버리었다면 김정은최고사령관의 대응방식은 상대방의 최대약점을 찾은 다음 원가까지 적게 드는 방식으로 상대방의 주장이나 활동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식이다.

김정은최고사령관은 조선의 국력과 군력, 민심에 기초하여 현란한 묘기들을 보여주는데 대내, 대외를 가르치지 않고 분석하면 그 특징이 변휘어짜면 바로 조선이 강조해온 《강경에는 초강경으로》이다.

선대지도자들이 닦아놓은 토대가 튼튼하기에 김정은최고사령관으로서의 굳은 의지와 실력을 과시할 필요가 없고 인력과 물력을 들이지 않거나 적게 들이면

고 말했다는데 실제모범으로 보여주는셈이다. 변화무쌍이 란 변수가 없다는 말이다. 변수가 많을수록 답을 얻기가 어려워지는 법이다. ...

본사기자

지난 3월 8일 평양대극장에서 는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를 모시고 국제부녀절기념 은하수음악회 《너성은 꽃이라네》가 진행되었다.

극장에서 직접 공연을 관람한 사람들은 물론 TV를 통해 공연을 본 시청자들의 반향은 대단하였다. 말그대로 《폭발적인 인기를 끈 공연》, 《큰 감동을 준 공연》, 《성공적인 공연》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공연을 한번 보고도 성차지 않아 두번 세번 또 보았다고 한다.

그러면 이번 공연이 사람들속에서 큰 인기를 끈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지금까지 공화국에서는 각

《만세!》를 부르고 또 불렀다.

이 날 경애하는 김정은 최고령도자께서는 관문점을 지켜선 전초병들의 병설, 식당, 체육관을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시었다.

침실에 들리시여서는 이만 하면 괜찮다고, 하지만 전초병들에게 더 좋은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병영을 더욱 번듯하게, 훌륭하게 꾸려주시고 말씀하시었다. 그러시고는 군복과 근무용신발을 주의깊게 보아주시며 질이 어떤가를 알아보

들이었다.

어머니와 녀성들에 대한 노래로 일색화된 공연, 이것은 지난 시기의 공연들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었다. 세상에 자기를 낳아 키워준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한가정의 알뜰한 주부인 안해를 사랑하는것도 이 나라 사람들의 미덕이다.

사랑과 정, 존경을 담아 이날에 울려 퍼진 어머니, 녀성들에 대한 노래는 들을수록 사람들의 가슴가슴을 뚫민한 정서와 생활에 대한 랑만으로 부풀게 했다.

이번 공연관람에 특별히 초대되어 온 극장안을 짝 매운 관중들도 부부일색이어서 이채를 띠는 면에서 새로운 공연이었다. 공연내용은 물론이고 형식에서도 지난 시기의 공연들에서 벗어나 새롭게 참신한것이 특징이다. 만사람의 감동을 자아내고 찬란한 빛을 받은 특색있는 공연, 3.8국제부녀절기념 은하수음악회 《너성은 꽃이라네》를 다시 살펴보기로 한다.

리용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부부가 노래 《어머니 생각》을 부를 때는 자기를 낳아 키워준 어머니를 추억하는듯 눈가에 이슬이 맺히기도 했다. 아 래에 그 가사를 몇줄 적어본다.

어려서는 철없어 예를 배우고 자라서는 철없이 속을 태웠대다시하신 눈가에 새겨진 주름이 아들이 걸은 자욱입니다아 어머니 나를 키운 어머니 우리 어머니 ...

누구에게나 어머니는 소중한 존재이구나 하는 생각을 불러일으켜준 노래였다.

런이여 김원홍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조직부부장 부부가 노래 《애혹과 흠모》를, 오극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가족이 노래 《우리 엄마 기쁘게 한번 웃으면》, 《나의 사랑 나의 행복》을 불렀다.

해산을 앞둔 전 보친보친자악단 성악가수 현송일이 노래 《준마치너》를 잘 불러 감흥을 자아내기도 했고 아버지와 아들이 《광한루로 어서 가자》를 구성지게 불러 흥취를 돋구기도 했다.

공연의 마지막무렵에는 출판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TV로 볼 때에는 항상 근엄해보이던 리춘희 인민방송원이 남편과 함께 춤을 추어 사람들을 기쁘게 하였는가 하면 김기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춤판에 뛰어들어 세련된 춤가락을 보여주시기도 하였다.

누구나 이번 음악회를 보고 즐거워했고 기뻐했다. 극장관람석에 앉으시여 관중들과 함께 박수도 쳐주시고 즐거운 미소도 지으시던 최고령도자의 모습은 화목한 대가정의 오락

회를 보여주시는 인자한 어머니의 모습 그대로였다.

3.8국제부녀절기념 은하수음악회는 인민과 한치의 간격도

없으시고 언제나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시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열화같은 인민사랑이 낳은 음악회였다.

승리의 노래 무대

이번 음악회는 승리의 음악회라고도 할수 있다. 지금 공화국의 정세는 전시상태나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어미를 가나 민족의 최고존엄을 모독한 리명박적대당의 공언을 보시고 승리의 화환의 빛이 비추어오고 수많은 청년들이 조선인민군 입대, 복대를 단원해나서고있다.

남조선에서는 며칠전까지만 해도 《키 리졸브》 군사연습이 진행되었고 지금은 또 방대한 무력과 최신장비들이 동원된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벌어지고있는 상태이다.

전시나 다름없는 분위기속에서 평양에서는 3.8국제부녀절기념음악회가 열렸다.

한 전쟁로병은 공연을 보고나서 지금으로부터 꼭 60년전인 1952년 2월 평양에서 열린 화선

음악회를 보는것 같았다고, 공연을 함께 보아 주신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모습에서 전쟁의 불구름속에서도 화선음악회를 열도록 하신 어머니수령님의 송고한 영상을 다시 떠올려볼수 있겠다고 격정에 겨워 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의 모습은 2005년 공화국의 자위적인 핵무기보유선언으로 세계가 벌들지마는 상소동을 피울 때 국립교향악단의 공연을 보시고 승리의 환한 미소를 지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 그대로이시었다.

며칠전에는 조선인민군 전략로케트사령부를 시찰하시었고 그 다음날에는 적의 총부리가 마주보이는 관문점을 찾아가시었던 것이이시었다.

동에 번쩍, 서에 번쩍 빨찌산 식현지시찰로 적들을 놀래우시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이번에는 국제부녀절기념 은하수

악회를 열어 적들을 혼비백산케 하시었다.

래일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이런 음악회를 열 생각조차 할수 없을것이다.

하기는 무엇이 두려울것인가. 공화국에는 어머니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련해놓으신 이 세상 제일 강한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이 있고 자위적혁명의력이 있다.

정치가로서의 자신만만한 신심, 군사가로서의 단력과 배짱을 지니시고 경제건설도 추진해나가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령도에 의하여 공화국에는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고있다.

3.8국제부녀절기념 은하수음악회는 승리와 영광의 상징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단력과 배짱이 비껴있는 승리의 음악회였다.

우리 공화국을 어찌보려고 적들이 발판적으로 쏘아대는 전쟁연습의 총포성을 짓눌러버리며 평양의 하늘가에는 랑만의 노래, 기쁨의 웃음소리가 높이 울려 퍼졌다.

겨울은 물러가고 지금은 환희의 새봄이다. 이 봄날에 울린 사랑의 노래, 승리의 노래와 더불어 공화국은 강성국가승리의 대문을 기어이 열어제길것이다.

본사기자 김춘경

송가와 더불어 영생하시는 위인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너무도 갑자기, 너무도 뜻밖에, 너무도 애석하게 잃은 비운으로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겨 몸부림치던 때로부터 어느덧 100일이 되어온다. 절세위인의 심장은 비록 고통을 멈추었으나 그이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 경모의 마음이 어린 불멸의 송가는 끝없이 울리고있다. 그것이 바로 온 겨레, 세계 진보적인류가 심장으로 부르는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이다.

백두산 줄기내려 금수강산 삼천리 장군님 높이 모신 환호성 울려가네

겨레와 인류의 마음을 담아

송가는 위인을 찬양하여 인민들이 마음속으로 터치는 노래이다. 인민은 심장으로 애송되는 위인에게만 노래를 드린다. 하기에 송가를 일러 《위인을 보는 거울》, 《노래이기 전에 애송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알렉산드르브의 《스팔린에 대한 노래》, 하차투랴의 《스팔린에 대한 서사시》와 같은 송가의 업적과 품모를 노래하는 송가들도 있었지만 그 송가들은 스팔린에 서거한 이후에 배신자들의 《개인미신》망명으로 력사의 락업속에 묻히고말았다.

인류력사를 거슬러보면 위인도 많았고 영웅도 많았다. 하지만 아버지 수령님에 이어 경애하는 장군님처럼 그토록 많은 송가를 받으신 절세위인은 찾아볼수 없다. 그 송가들을 뜯어보면 끝이 없다. 《대를 이어 찬송을 다하렵니다》,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노래》, 《장군님 찬송길 걸지 마시라》, 《그이의 한생》...

송가는 곧 위인상의 반영이다. 그 무수한 송가들을 하늘의 뭉뚱들에 비한다면 태양찬가인 《김정일장군의 노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인류를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절세의 위인상과 업적을 다 안고있는 장군별이라 부르고싶다.

《김정일장군의 노래》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평도를 받들고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이 곁쌍이는 온갖 시련과 난관을 뚫고 헤쳐머 이 땅우에 강성국가건설의 새 력사를 창조해가던 주제 86(1997)년에 창작되었다. 그러나 노래는 장군님께서 굳이 막으셨으므로 하여 널리 불

래양의 위업 빛내신 인민의 령도자 만세 만세 김정일장군 ...

《김정일장군의 노래》속에 나라와 인민, 겨레를 위해 바치신 절세의 애국자의 한생, 겨레와 인류의 다함없는 찬송이 있다. 회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영생을 기원하며 말과 글로 다 표현할수 없는 송가의 심오한 뜻을 소박하게나마 이 글에 새겨보고저 한다.

리워지지 못했다. 주제86(1997)년 3월 어느날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신 한 인민군구분대의 병실에서는 《김정일장군의 노래》가 숨넘하게 울려나왔다. 뜨거운 격정을 안고 부르는 병사들의 노래를 들으신 장군님께서서는 이 노래를 그렇게도 하지 말라고 막았는데 동무들이 끝내 부른다고 조용히 말씀하시었다고 한다.

노래는 김일성주석께서 서거하신 이후 몽상 3년기간에 한입건너 두입건너 사람들속에 퍼지게 되었다. 민심이 천심이라고 노래는 날을 따라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어주며 불리워졌다. 평양출판사에서 발행한 김정일장군님의 전기 《김정일지도자》(제4부)에서는 송가가 세상에 나오게 된 경위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민중의 이 강렬하고도 절대적인 신뢰와 호모는 용암의 끓음과도 같이 뜨거웠습니다. 마침내 그것이 분화구를 찾아 화산의 분출을 일으키는 것과 같은 일이 벌어졌다. 시대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가 세상에 널리 울려 퍼진 것이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1997년 4월 9일 《로동신문》을 비롯한 신문들과 방송들이 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를 널리 소개하였다.》

《김정일장군의 노래》는 인민의 마음속에 새겨진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호모의 감정과 절대적인 숭배심, 그이께서 민족자주위업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에 대한 만민의 다함없는 찬송이 어린 송가이다.

불멸의 송가가 세상에 나오자마자 세계의 수많은 나라 통신, 언론들은 이 노래를 소개하면서 장군님을 자주정치 대표자로, 21세기의 태양으로 높이 칭송하는 《자주시대의 진군가》, 《세계민중들의 고무적기치》, 《시대의 찬가》라고 대서특필하였다.

태양열을 맞으며 평양에서 진행되던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무대며 국제문화예술축전, 수많은 나라와 지역의 단체들이 조직한 문화행사무대에서 송가가 높이 울려 퍼졌다.

1998년 12월 미국의 뉴욕에 있는 머르킨음악당에서 서울교향악단이 주최하고 미국의 예술인들이 찬조출연하는 제46회 정기음악회가 성황리에 진행되었는데 여기에서 《김정일장군의 노래》가 수백명 관중의 절찬을 받으며 장중하게 울려 퍼져 세인의 커다란 관심을 모았던것은 그 하나의 실례이다.

에티오피아신문 《모니터》(1999년 2월 11일)는 《김정일장군의 노래》를 소개

송가에 어려있는 위인의 한생

송가에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인민적한생이 어려있다. 백두광명성의 탄생을 알리던 천고의 밀림에서 터져오른 력사의 환호성이 송가의 선율을 타고 오늘도 귀전에 울려오는듯 하다.

준엄했던 항일의 나날 유격대원들이 백두의 푸른 기슭과 정기를 안고 탄생하신 위인을 칭송하면서 민족의 대경사를 아름답게 노래하며 글발로 새겨 온 세상에 전하였다.

《아 백두광명성탄생을 알린다》, 《고모여 보느냐 듣느냐 백두산에 김대장 뜻 이를 광명성 솟았다》...

광명성! 이 성스러운 부름에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조국해방의 해를 높이 올리신 조종의 산, 민족의 능선과 더불어 김정일장군님께서 영원히 이 나라, 이 땅을 밝게 비추주시기를 바라마지 않는 겨레의 뜨거운 마음과 간절한 소원이 소중히 담겨있었다.

장군님의 탄생은 백두밀림에서 개척된 민족자주위업의 승리적전진을 기약하는 찬란한 해

하면서 이렇게 썼다. 《〈김정일장군의 노래〉가 조선에서뿐 아니라 전세계에 널리 울려 퍼지고있다. 노래에서 〈장군님 높이 모신 환호성 울려가네〉라고 표현하였는데 이것은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니다. ... (김정일장군의 노래)는 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절세의 위인에 대한 조선인민과 진보적인류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은 노래이다. 인류는 위인을 노래한다.》

위대한 사상과 탁월한 정치실력으로 세계의 자주화위업을 이끌어 나가는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심이 어린 격정의 토로이다. 오늘 세상사람들은 사랑과 정의, 자유를 반영한것으로 하여 명목이라 불리우는 예술작품은 많지만 위인을 노래하는 인류의 송가는 오직 《김정일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뿐이라고, 시대를 대표하는 위인찬가를 받아안게 된것은 인류의 행운이라고 찬란의 목소리를 터치고있다.

오래 세상사람들은 사랑과 정의, 자유를 반영한것으로 하여 명목이라 불리우는 예술작품은 많지만 위인을 노래하는 인류의 송가는 오직 《김정일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뿐이라고, 시대를 대표하는 위인찬가를 받아안게 된것은 인류의 행운이라고 찬란의 목소리를 터치고있다.

들어있으며 백두산의 위대한 아들, 시대의 향도성을 맞이한 조국과 인민, 온 겨레의 크나큰 경사였다.

백두의 설한풍을 자장가로 들으며 성장하신 장군님께서서는 항일전과 새 조국건설, 조국해방전쟁과 전후복구건설을 비롯한 준엄한 년대들에 수령님의 위업을 계승하실 후계자의 자질과 품모를 완벽하게 갖추시었고 수령님의 현지도도를 충직하게 보좌하시며 선군의 기치높이 민족자주위업을 승리로 이끌어 오시었다.

《대지의 천만꽃도 그 사랑을 전하고 동서해 푸른물도 그 업적 노래하네 주체의 락인 가우신 행복의 창조자》라는 송가의 시어 들에는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지니신분, 흰눈처럼 한생을 바쳐 강성국가건설의 만년토대를 마련해주시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전환기를 열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업적이 집약되어있다.

인제나 인민을 마음속에 두시고 천만고생도 달게 여기신 장군님, 사랑하는 동지들과 인

민을 위해 눈물도 많이 흘리신 아버지장군님의 뜨거운 인정의 세계. 세상에 인민을 위한다는 정치인은 많아도 삼복의 옥양, 대소환의 추위도 아랑곳없이, 살을 에이는 듯 한 동풍도 이겨내시며 인민과 함께 있는 위인은 없었다.

이민위천 그 념원을 꽃피우시려 장군님께서 끊임없이 이어오신 전진길, 현지도도의 길에서 생겨난 쪽잠과 꿩기발, 야전리밭, 야전숙우, 삼복철강행군 등 전진적인 일화들은 그 얼마인가. 인민의 행복 넘겨날 더 좋은 앞날을 위해 장군님께서 걸으신 초강도현지도강행군길에 어린 로고와 송고한 사랑의 자욱자욱은 그대로 《김정일장군의 노래》의 구절이 되고 선율이 되었다.

조국땅에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든든한 토대를 마련해주시고도 이 땅에 자신을 위해서는 동상 하나, 기념비 하나 남기지 않으신분. 그이께서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날에 걸으신 함남에로의 길은 대고조의 최후승리, 인민생활향상의 돌고리를 마련하시기 위한 한눈겨운 현신의 길이었다. 한평생 야전복을 벗지 않으시고 불면불휴의 현지도강행군을 이어가신 장군님의 현신과 로고로써 이 땅우에 위성이 하늘을 날고 철갑산이 바다로 나가는 회한한 현실, CNC기계바다, 사과바다, 비날론폭포 등 전진의 현실들이 펼쳐졌다.

송가는 경애하는 장군님이시야말로 자주의 기치, 선군의 기치 높이 강철의 단력으로 사회주의를 지켜 내 나라, 내 조국을 세상에 떨치신 정의의 수호자임을 격조높이 구가하고있다. 《강철의 단력으로 사회주의 지켜 내 나라 내 조국을 세상에 떨치시네》라는 구절은 최익의 시련속에서 나라와 인민, 민족의 운명을 지켜내시고 민족의 존엄을 세상에 떨쳐주시는 위대한 정의의 수호자의 단력과 기상, 신념과 의지를 보여주고있다.

누구나 존엄이란 말은 쉽게 하지만 그 존엄을 지켜내기가 말처럼 쉽지 않다. 나에게서 그 어떤 변화를 바라지 말라고 선언하시며 적대세력의 도전에 백두의 총대, 추상 같은 회색으로 대담하는 무비의 단력과 배짱을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만 지켜내실수 있는 존엄이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 맡기고가신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함몰에 지니시고 억수로 비가 쏟아지던 날 땅장이라도 산사태가 날것같이 울릴거리리는 산허리를 옆에 끼고 쪽쪽 미끄러지는 오솔길, 허러치는 수를 한치한치 헤쳐가시던 못 잊을 8월이며 내려다보기도 아찔한 벼랑길을 한치한치 뚫어오르시던 11월의 이야기는 장군님 한 걸음 선군의 길이 얼마나 험난한 길이었든가를 잘 말해준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인제나 최고사령부를 전선에 두시고 철령

송가와 더불어 위인은 영생한다

력사에 위인송가들은 많았지만 그 모든 송가들이 위인에 대한 추억과 더불어 영원성을 띤것은 아니다.

아무리 훌륭한 송가도 지켜주고 빛내여주는 손길이 없으면 잊혀지고 사라져가기 마련이다. 위인의 서거와 함께 그이에 대한 송가도 사라지는것을 력사는 지금껏 력사롭게 보여왔다. 당대에는 명곡이었던 수령에 대한 송가들이 다음대에는 부정당하거나 외면당하고 다만 지나간 력사에 대한 추억의 상징이나 기념물, 유산으로서의 가치만 남기가 일췌였다.

하지만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함께 《김정일장군의 노래》는 당대에 한한 노래가 아니다. 이 땅에 흐른 예도의 낮과 밤, 그리움의 날과 달들은 온 나라, 말로 자주의 기치, 선군의 기치 높이 강철의 단력으로 사회주의를 지켜 내 나라, 내 조국을 세상에 떨치신 정의의 수호자의 단력과 기상, 신념과 의지를 보여주고있다.

누구나 존엄이란 말은 쉽게 하지만 그 존엄을 지켜내기가 말처럼 쉽지 않다. 나에게서 그 어떤 변화를 바라지 말라고 선언하시며 적대세력의 도전에 백두의 총대, 추상 같은 회색으로 대담하는 무비의 단력과 배짱을 지니신 위대한

영령의 100여리연도와 중앙추도대회,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김정일장군의 노래》가 장중하게 울려 퍼지는 이 불멸의 혁명 송가와 함께 경애하는 장군님은 영원히 우리 겨레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여준것이었다. 아버지장군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김정은최고령도자

과 오성산, 초도와 판문점을 비롯하여 병사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나 다 찾아서 그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시고 고락을 함께 하신 친어버이사랑은 전군을 최고사령관과 펠레야 펠수 없는 혼연일체의 강군으로 키웠다.

바로 그 사랑, 그 열정, 그 고수에 공화국은 어떤 시련과 난관에도 끄떡하지 않는 일심단결된 불멸의 정치사상강국, 어떤 원수도 감히 범접 못하는 군사강국, 핵보유국으로 위용떨치게 되었다. 부르면 부를수록 태양처럼 환한 신 영산, 자애로운 아버지의 따뜻한 미소, 애국의 열정이 안겨오는 위인찬가 《김정일장군의 노래》는 절세의 애국자 김정일장군님의 위인상과 불멸의 업적을 력사에 길이 전하는 증경자이다.

받들어 장군님의 유훈을 거어어 실현해갈 이 땅의 수천만 아들딸들의 심장의 웨침은 만사람의 가슴을 열어나 뜨겁게 달구어주었다.

《김정일장군의 인민이여 일떠서라》, 《인민이여 우리에게 김정은대장이 계신다》, 《장군님세월은 영원히 굵이쳐 흐르리라》, 《위대한 상봉》, 《우리에게는 장군님 계시는 세월만 있다》, 《장군님은 영원히 인민들과 함께 계신다》, 《전진길의 보도는 영원히 울리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신념의 구호, 위인송가 높이 울린 2012년 은하수년은악회며 중대대회행사장에서 이 땅의 군대와 인민은 위인의 영생을 보았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김정일장군의 노래》를 리는 이 땅에 노래 《조선의 힘》, 《장군님은 태양으로 영생하신다》와 같은 위인칭송의 송가들이 련이어 울리도록 하시고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과 영생탑을 건립하며 그이의 탄생일을 광명성절로 할때 대한 송고한 조치들을 취해주시고 감동있는 사실들은 또 얼마나 만사람의 가슴을 격동케 했던가.

수령명성위업을 최상의 경지에서 실현해나가는 위대한 김정은최고령도자를 조선로동당과 군대, 국가의 수위에 높이 모시어 김정일장군님은 만민의 심정속에 영생하실것이며 그이의 영원히 우리 겨레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여준것이었다. 아버지장군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김정은최고령도자

본사기자 심영철

조선의 영광 민족의 대행운 조국의 강성부흥을 위하여

민족의 강성부흥, 이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필생의 뜻이고 념원이었다.

위대한 장군님은 민족자주위업, 강성국가건설위업수행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나라와 민족의 운명, 자손만대의 무궁한 번영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절세의 애국자, 민족의 아버지 이시다.

일찌기 항일대전의 나날 백두산에서 빨찌산의 아들로 탄생하시어 한생을 총과 같이 할 굳은 결의를 다지시며 령장의 품모와 자질을 겸비하신 장군님께서서는 주제49(1960)년 8월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명교사단에 대한 시찰에 이어 선군의 길을 끊임없이 걸으셨었다. 비범한 지략과 단력, 배짱을 지니신 회세의 선군평장을 진두에 높이 모시어 공화국은 제국주의와의 치렬한 대결전에서 련전련승할 수 있었다. 적대세력이 《푸에블로》 호사건과 《EC-121》 대형간첩비행기 사건, 판문점사건 등을 일으켰을 때 단호한 자위적조치로 무자비한 징벌을 가하고 지난 세계 90년대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연합세력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에 초강경의지로 맞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켜낼수 있었던것은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오직 선군만이 아버지수령님의 위대한 한평생이 비껴있는 우리 조국의 모든것을 지키고 빛내이는 길이며 조국의 훌륭한 레일을 담보하는 길이다.

장군님께서 선군의지를 지니시고 불철주야의 전진강행군으로 넘으신 험한 산맥은 그 절망이며 헤쳐오신 선군의 길 몇천몇천리이다. 철령의 아흔아홉굽이며 오성산의 험준한 산밭들, 1211고지, 351고

지, 대덕산초소를 비롯한 수많은 초소들을 찾아 끝없이 이어진 전진길에 그의 조국수호의 자욱이 력력히 새겨졌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해에만도 인민군대의 강화발전과 관련한 현시찰 및 지도사업을 수십차례 나 진행하시었다.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에 인민군대의 위력이 백방으로 강화되고 공화국은 그 어떤 대적도 범접 못하는 자위의 군사강국, 강위력한 핵보유국으로 전변될수 있었다.

그이께서는 력사에 류례없는 것처럼 간고한 시련과 난관을 맞받아헤치시며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지켜내시였을뿐 아니라 강성국가건설위업실현의 든든한 토대를 마련해주시었다.

국력이 강하고 모든것이 흥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럽없이 사는 강성국가 건설하는것은 아버지수령님의 송고한 뜻을 이어나가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리상이었다. 예로부터 사람이 재난을 당하면 3일을 수습해야 하고 가족이 재난을 당하면 석달을 수습해야 하며 나라가 재난을 당하면 30년을 수습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장군님께서서는 온 나라가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하고있던 어려운 시기에 벌써 민족의 전 앞날을 내다보시고 강성국가건설을 구상하시였으며 짧은 기간에 그 도약대를 마련하기 위한 투쟁에 전군, 전민을 힘있게 불리워시키셨었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 강계정신이 창조되고 전체 인민이 시련을 박차고 일어났다. 성강의 봉화, 락인의 봉화가 지펴지고 새로운 천리마속도, 화천속도의 열풍속에 세인을 경탄케 하는 기적과 사변이 다계단으로 일어나 경제국가건설의 확고한 토대가 마련되

게 되었다. 인공지구위성의 련이어 발사와 두차례의 지하핵시험에서의 성공 그리고 주제철, 주제철, 주제철, 주제비료생산의 확고한 토대축성, 기계제작공업에서의 CNC기술에 의한 최첨단돌과 등으로 나라의 국력이 최상의 경지에 이르렀고 현대화된 경공업기지와 가공기지, 축산기지, 과일생산기지가 우후죽순처럼 일떠서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수 있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일본의 한 인사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오늘에 와서야 비로소 김정일총비서께서 공화국이 가장 어려웠던 그 날에 무엇을 위하여 결연히 고난의 행군을 걸심하고 그 모진 시련을 앞장에서 헤쳐오시였는가를 새롭게 음미해보고있다. 그리고 김정일총비서의 자주정치야래 강철처럼 굳어지고 철통같이 단결된 조선인민이 반드시 강성국가를 일떠세우리라는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있다.》고 동경을 금치 못해하였다.

로세야신문 《빠뜨리오프》는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고귀한 생애의 전기간 조국과 인민에게 헌신적으로 복무하셨다. 사회주의전위물을 굳건히 수호하시고 민족만대의 번영을 위한 강력한 정치군사적, 경제적으로 선인민이 반드시 강성국가를 일떠세우리라는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있다.》고 동경을 금치 못해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민족의 강성번영을 위해 이룩하신 거대한 업적은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계시여 길이 빛나고있다. 선군의 기치높이 전진시찰의 길, 현지도의 길을 쉬임없이 이어가시는 그의 현명한 령도없이 이 땅우에 장군님의 념원이며 리상인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고있는것이다.

리잔영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해 간다. -철도성혁명사적관에서-

천년, 만년. 세월은 자기의 시간표대로 끊임없이 흐르고흐른다. 민족의 아버지를 잃은 절통함이 조국강산에 사무쳤건 날 무정한 세월은 흐름을 멈추지 않는다.

호르는 날과 달속에 더더욱 간절해지는 그 리움을 안고 이 나라 인민은 누구나 시인이 되고 작가가 되어 아버지를 노래해왔다.

호희 사람들은 세월의 흐름을 땅과의 위장이라고 일러왔지만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들의 행복을 위해 한순간의 휴식도 없이 초강도현지도강행군길, 눈보라 만리길을 이어오신 위대한

생존해계시던 어제가 다시 울수도 있었으면. 꿈속에서도 아버지를 목메여 부르는 온 나라 아들딸들에게 영생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비울수 있게 해주신분, 이 땅에 장군님의

것을 다시금 가슴절절하게 느끼게 해준 그리움의 날과 달들이었다.

사과꽃 피워놓고 아뢰면 오실가, 비날론폭포소식을 아뢰면 또 오실가 하고 인민들은 그이를 애가 부르며 또 부르고있다. 세월의 흐름을 거꾸로 돌릴수만 있다면 아버지장군님

하고 건국각지에 영생탑을 건립할때 대한 정령이 발표되게 된데도, 경애하는 장군님의 동상을 정중히 건립하며 금수산기념공전을 금수산태양궁전으로 명명하도록 하는 송고한 조치가 취

해지게 된데도 그이의 송고한 총정파 도덕의 리가 틀들어있다.

총의의 최고귀감이신 천출위인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계시고 백두에서 개척된 민족자주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확고부동한 결심과 역센 의지가 있어 위대한 장군님은 천년만년 길이 영생하실것이다. 평양시 중구역 동흥동 송영순

보복성전이 무엇인지 알고 날치는가

산천초목도 분노할 리명박 역적무리들의 천인공노할 대 죄악에 공화국의 천만국민이 한사람같이 일떠섰다.

우리 민족의 생명이며 운명의 수호자, 민족번영의 기치인 최고존엄을 중상모독한 천하에 볼드 없는 인간쓰레기들, 민족반역아들들이 땅에서, 아니 지구상에서 영원히 살아숨쉬지 못하게 하려는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의 멸적의 기상은 하늘땅을 진감하고있다.

그런데 리명박역적무리들은 노호하는 격랑처럼 무섭게 일떠선 북앞에서 저들이 저지른 특대형도발을 놓고 석고대죄할 대신 오히려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도전적으로 나오고있다.

지난 5일 호전세력들의 집합적인 국방부는 대변인이라는 자를 내세워 《북의 역적주장에 대해 일일이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인천부대의 게시물은 대적판권임을 위해 부착한것일뿐》이라

고, 《오히려 북에 비방중상중단을 촉구해야 할 립장》이라느니 뭐니 하고 떠들었다.

이에 덩달아 통일부도 《군내부의 사안》이라느니, 《적절치 않다.》느니, 《대남비방부터 즉각 중단하는것이 기본도리》라느니 뭐니 하면서 특대형범죄의 책임을 회피해보려고 온당치 않게 놀아났다.

더욱 치명적인것은 호전적인 군부장관들이 감히 《군내부에 걸려있는 사진과 비난문구를 철거하지 않겠다.》, 《북의 역적주장에 관계없이 군사훈련을 예정대로 하겠다.》고 웨치면서 최고존엄을 모독한 죄를 계속 저지르겠다고 피대를 돌군것이다.

여기에 한수 더 떠서 특대형도발행위의 주범인 국방부장관 김관진은 연평도와 미사일부대들을 개사다나듯 돌아치며 그 누구의 《도발》에 《단호하고 강력하게 응

정하라.》고 요란스레 고아였다. 같은 주범인 합동참모본부 의장 정승조도 경기도 평택의 남조선해군 2함대에 나타나 《북이 언제든지 도발할수 있다.》면서 《그것을 절호의 기회로 여기고 현장에서 가용전력으로 즉각 강력히 응징》이라고 수하를 개물레로 호령했다.

천백배로 다져진 공화국의 멸적의 기상과 보복의지를 오만하며 무분별하게 도전하는 리명박역적무리들의 망동은 다치면 터질듯 격앙된 북의 감정을 더욱더 자극하는 극악무도한 도전이며 진짜전쟁만 아니면언제든 모르는자들의 무분별한 대결망동이다.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중상모독하는 게시물을 내리우기는커녕 오히려 그 무슨 《보복》과 《응징》을 떠들며 북진전연습을 강화하겠다는 호전광들의 치명리는 망동은 그들이 북과 끝까지 맞서보겠다는 포고가 아

닐수 없다.

철과 철이 부딪치고 불과 불이 대응하는 전쟁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리명박역적무리들의 대결광증으로 말미암아 조선반도에서 전쟁은 시간문제라 되었고 이 지역은 공기마저 팽팽해졌다.

민족의 대국상으로 비분에 잠겨있는 겨레의 심장에 칼질을 해낸 천하에 볼드 없는 깡패무리, 전쟁광신자들이 이 하늘아래 살아 우리와 함께 숨을 쉬고있다는것 자체가 민족의 수치이며 가슴치고 통탄할 일이 아닐수 없다.

자기의 최고존엄을 털끝만 큼이라도 건드린자들은 이 땅, 이 하늘아래 살아숨쉬는 곳이 없게 될것이라는것을 이미 내외에 엄숙히 천명한 공화국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저지러줄 없는 천추만대의 대죄악을 감행한 리명박역적패당을 씨도 없이 이 땅에서 영영 쓸어버리기 위한 단단의 결전태세를 갖추

고있다.

전쟁에서 살길을 찾고 동족대결을 피하다, 불바다로 확대하려는 민족반역의 무리와의 결교 말로 통하지 않는다.

역적패당이 살기를 단념하고 로골적으로 도발을 걸어온이상 북은 그에 따른 단호한 대응조치로 역사의 쓰레기들을 수청하고 민족의 최대속원인 조국통일을 이룩할 것이다.

이것은 최고존엄을 가장 신성히 여기고 이를 모독하는자들을 결코 용서치 않는 북의 최종결단이다.

하루강아지 범 무서운줄 모르고 날뛰는 격으로 입에 전쟁의 칼을 물고 뽀뽀하는 리명박역적무리들은 돌이킬수 없는 파국적사태를 몰아온 특급전법자로서의 책임이 어느 결코 벗어날수 없다. 성난 백두산호랑이앞에서 민족반역무리들은 뼈다귀도 변변히 건지지 못할것이다.

본사기자 김용철

온 세상이 알게 하라

보기만 해도 섬찍한 《유신》 독재자 무덤에서 나왔는가
《총선》이요, 《대선》이요
온 남녘방을 돌아치며
바근해 간뜩한 웃음 흘린다

회색의 독재자가
제 운명처럼 움켜쥐었던
파소의 그 권총을
《유신》의 그 피비린 쇠고랑을
치마속 깊숙이 감추고

하늘에 터치는 분노여
4.19의 련사들이
아직도 두는 부릅뜨고있는 땅에
《유신》 독재자의 분신이
《유신》 망령을 안고 활개치거니

얼마나 무서운 일이나
총칼로 독재자가 찬탈해했던
《대통령》 버거지
박근혜가 쓴다는것은
독재자가 다시 《대통령》 되는것!

정녕 남녘이여 거기엔
정의론 사람들이 없단 말인가
영용한 4.19의 후손들
《유신》의 칼에 무참히 쓰러진

수많은 그들의 자손들
파던 피의 흰한 잇었던 말인가

민중에게 화려한 거짓공약하고
동족의 가슴엔 칼을 박으며
박근혜가 일으키는
《대통령》 야욕의 미친바람
운명처럼 감수해야만 하는가

그대로 살려둘수 없어라
민생과 민주, 통일을 암살한
피비린 암흑시대
파소가 란무하던 《유신》 시대로
력사를 돌려세우려는 박근혜

일떠서라, 남녘이여
하나로 일떠서 정벌하라
선대가 물려준 투쟁정신
정의와 진리, 자주와 민주, 철퇴로
《유신》 잔당 가차없이 족쳐부시라

그렇게 새세상 불리불러
남녘방에
민주를 위해 심장 바치고
통일을 위해 목숨 불사르는
정의론 사람들이 살고있음을
온 세상이 알게 하라!

얼마전 남조선의 민주총합당과 통합진보당이 《총선》런대를 합의하였다. 각자의 리해관계와 주의주장으로 하여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사이의 《총선》런대합의과정에는 일정한 진통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반역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하나의 공동된 목적과 《총선》에서 승리를 취하기 위해서는 단합하여야 한다는 민심의 요구에 따라 서로의 차이를 뒤로 하고 야권련대를 성사시켰고 있다. 야당들사이에서 성사된 《총선》런대합의는 반역무리들을 청산하고 새 사회를 지향하는 진보민주세력들이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고 있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남조선에서 오는 4월에 있게 될 《총선》은 진보와 보수, 민주와 파쇼간의 첨예한 대결전이다. 낡은것을 청산하고

새것을 지향하는 진보민주세력은 《총선》에서 승리하여 민심이 요구하는 민주화된 새 사회를 안아오려 하고있다. 이와 반면에 보수세력은 이번 《총선》에서 어떻게 해서나 이겨 파쇼통치체도와 동족대결을 지속시키려 하고있다. 이런것으로 하여 다가오는 《총선》

은 남조선사회와 인민들의 운명을 판가름하는 중대한 《선거》로, 여야를 가림없이 생사를 건 판가리싸움으로 되고있다. 이러한 대결전을 앞에 두고 야당들이 서로 힘을 합친것은 참으로 의미가 깊다.

단결은 힘이고 뭉치면 승리한다는것은 역사의 진리이다. 지난해 10월 26일에 은 남조선의 서울시장 《선

거》에서 새 정치, 새 생활을 갈망하며 투쟁해온 각계 민주개혁세력이 단합하여 빛나는 승리를 거둔것은 이에 대한 실증이다.

진보와 보수, 민주와 파쇼, 시민사회세력과 구성치세력사이에서 벌어진 《선거》를 통하여 남조선의 각계층은 인민의 힘은 무궁무

돌려싸고 계파간의 알뜰과 대립이 갈수록 우심해지고 있다.

《새누리당》의 사당화를 꿈꾸는 친박계의 팽배속에 친리계의 인물들이 《공천》에서 무리로 떨어지고 그들이 사퇴하여 무소속연대를 만들려는 등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신세에 놓여있다.

야권련대가 날로 강화되는 속에 내부갈등으로 위기에 처한 《새누리당》은 지고 불리해진 《총선》형세를 바로잡아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다.

지금 《새누리당》은 《진형적인 야합행위》라느니, 《민의를 회복하려는 어떤 시도도 무과하지 않겠다.》느니 뭐니 하면서 상대방을 비방하고 분열시켜 물

어메치기 위한 모략선전을 벌리는 한편 《조, 중, 동》을 비롯한 보수언론과 검찰을 동원하여 터무니없는 중상모독으로 야당세력집합기에 전진공공하고있다. 그런가하면 《안보위기》를 떠들면서 새로운 《북풍》을 조작하여 진보개혁세력들을 《친북좌파》로 몰아 《총선》분위를 저들에게 유리하게 전전시켜보려 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한갓 부질없는짓이다.

반 《정부》, 반보수의 기치밑에 단결하여 단결하여 야권련대를 실현한 진보개혁세력들은 그 기세로 이번 《총선》에서 썩은 정치만을 일삼는 보수세력을 심판할 의지로 총만들고있다. 썩고 낡은것의 집합체인 《새누리당》을 민심이 단호히 심판할 그날은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다.

서철수

나쁜짓만 골라하는 악당

현세에서 교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악》을 범하면 사후에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한다.

성경에는 《기만과 죄악은 가장 큰 악마의 자식이다, 너는 나쁜짓만 골라하면서 하는 악당이다.》고 쓰여 있다. 《사도행전 13:10》

지난 시기 《인공기표적》 사건, 《구호 또는 현수막》 사건, 《최고존엄표적사격》 행위에 이어 또다시 특대형도발행위를 감행한 리명박패당이야말로 나쁜짓만 골라가면서 하는 천하악당의 악당이다.

지금 공화국의 전체 군대와 인민뿐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리명박패당의 엄청난 도발행위에 치솟는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있으며 이 땅에서 사탄의 무

나쁜짓만 골라하는 악당

리들을 씨도 없이 정벌하기 위해 정의의 의지를 가다듬고있다.

민족의 대국상을 당하고 가실길 없는 슬픔에 잠겨있는 동족에게 위로의 말은 하지 못할정도의 외세와 야합하여 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다 못해 민족의 최고존엄을 엄중히 모독한 이런 악당무리들과 어떻게 한하늘을 이고 살수 있겠는가.

남조선인민들에게 동족에 대한 적대감을 주입하는것을 주요정책과제로 내세우고 북을 《동족으로만 생각해서는 안된다.》, 《대결의 상대로 보아야 한다.》고 지껄이며 사회전반에 《주적》 개념을 부식시키기 위해 방광하는 독사의 무리들을 어떻게 주님안의 한형제

이교 조선사람이라고 하겠는가.

오늘의 현실은 나쁜짓만 골라가면서 하는 사탄의 무리들이 그 악습을 절대로 버릴수 없다는것을 보여준다.

이 독사의 족속들은 이 땅 그 어디에 있어도 정의의 징벌을 피할길 없을것이다. 정교뒤에 따르는것은 오직 죽음뿐이다.

징벌의 도끼는 이미 나무 뿌리에 닿았다.

북과 남, 해외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놓고 도박을 하는 악당의 무리들을 모조리 찍어 불속에 던져넣음으로써 이 땅에 사랑과 정의, 평화와 일치의 새세상을 안아와야 할것이다.

조선그리스도교련맹 중앙위원회 목사 송철민

이교 조선사람이라고 하겠는가.

오늘의 현실은 나쁜짓만 골라가면서 하는 사탄의 무리들이 그 악습을 절대로 버릴수 없다는것을 보여준다.

이 독사의 족속들은 이 땅 그 어디에 있어도 정의의 징벌을 피할길 없을것이다. 정교뒤에 따르는것은 오직 죽음뿐이다.

징벌의 도끼는 이미 나무 뿌리에 닿았다.

북과 남, 해외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놓고 도박을 하는 악당의 무리들을 모조리 찍어 불속에 던져넣음으로써 이 땅에 사랑과 정의, 평화와 일치의 새세상을 안아와야 할것이다.

조선그리스도교련맹 중앙위원회 목사 송철민

모든 책임은 리명박 《정부》에 있다

남조선신문 《한겨레》가 사실을 통해 당국의 해군기지건설강행으로 제주도에서 반 《정부》 기운이 고조되고 있는데 대해 전하였다.

사실은 7월 새벽 군당국이 제주 강정마을의 바다가에 있는 최귀한 자연바위인 구럼비바위를 끝날때 폭파하겠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제주 4.3항쟁이 있는 때로부터 수십년 세월이 흐른 오늘 강정마을의 3월은 화염으로 자욱하다.

경찰 600여명이 주민 1000여명에게 맞선다.

사실은 2년 남짓한 기간에

만도 수백여명이 그리고 올해에만도 109명이 련행되었다고 밝히면서 이렇게 강조하였다.

구럼비바위폭파는 제주도민에 대한 선전포고이다. 주민들의 마지막 믿음과 기대가 배반당하였다.

싸움은 이제 《정부》와 제주도전체로 확장되고있다.

제주의 봄은 격랑속으로 빠져들고있다.

구럼비바위에서 철수하기 바란다.

총들의 모든 책임은 리명박 《정부》에 있다.

본사기자

구럼비바위의 통곡소리를 듣는다

내 고향은 제주도이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잊지 못할 외로운 고향마을 정경이 눈에 선히 떠오른다. 바다물이 밀려들어와다가 나가면 우리 집마당앞까지 조개를 비롯한 해산물들이 널리군 하였다는 제주도. 그렇게 풍치가 좋았던 제주도도 요새 해군기지건설 바람에 비상사태이런이 되고 바위들까지 몽땅 파헤쳐지는 폭파음과 매연으로 뒤덮였다고 한다.

우리 일가가 살던 집가까이에 있는 길이가 1.2km이고 너비가 250m의 통돌로 이루어진 강정마을의 거대한 구럼비바위, 수십만년의

력사를 지니고 고향의 자랑으로 되어오던 구럼비바위가 깨져나가는 참사가 좋지 않게 감행되고있다고 한다. 분노한 사람들이 투쟁에 일떠섰으나 리명박패당은 인민들의 저주와 규탄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공사를 강행하고있다.

리명박이 집권하여 한것이 4대강을 파헤치면서 강토를 땅치는 놀음이니 이제 는 제주도에까지 범죄의 삽을 박아 뛰어난 환경을 파괴하고 주민들의 생존터를 짓기해놓으려 하고있다. 그 환경파괴의 대가로 제주도를 동족대결을 위한 전쟁지대로 만들려고 하니 이보다 더한 죄악이 어디에 있겠는가.

리명박이야말로 남조선인민들보다 미국상선의 리익을 앞세우고 동족대결을 위해서는 그 어떤것도 가리지 않는 매국노라 하지 않을수 없다.

지금 제주도민을 비롯한은 남녘겨레가 분노하여 해군기지건설반대투쟁의 불길을 높이 지피고있다. 그속에는 헤너던 나의 어머니의 생모어머니의 자손들도 있을것이다.

동족대결의 광기가 극도에 달해 도처에서 전쟁위험만 가중시키는 역적무리들을 하루빨리 단호히 정벌해야 한다.

평양시 평천구역 룡교1동 량춘대

가. 리명박이야말로 남조선인민들보다 미국상선의 리익을 앞세우고 동족대결을 위해서는 그 어떤것도 가리지 않는 매국노라 하지 않을수 없다.

지금 제주도민을 비롯한은 남녘겨레가 분노하여 해군기지건설반대투쟁의 불길을 높이 지피고있다. 그속에는 헤너던 나의 어머니의 생모어머니의 자손들도 있을것이다.

동족대결의 광기가 극도에 달해 도처에서 전쟁위험만 가중시키는 역적무리들을 하루빨리 단호히 정벌해야 한다.

평양시 평천구역 룡교1동 량춘대

무모한 행위를 단죄

남조선의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련대가 서울의 미국대사관주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서울에서 그 무슨 《핵안전수뇌자회의》라는것을 벌려놓으려는 피괴패당을 규탄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북의 애도기간에 남조선에서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벌어지고 인천시에 주둔하고있는 군내대 내부에 북의 최고존엄을 중상모독하는 글을 써붙인것으로 하여

조선반도에는 6.25전쟁이후 최악의 군사적긴장이 조성되었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속에 《정부》가 서울에서 《핵안전수뇌자회의》를 열고 《북핵문제》를 논의하려 하는것은 실을 지고 불속에 뛰어드는 격이며 자치하던 새로운 세계대전으로 이어질수 있다고 그들은 경고하였다.

그들은 북을 겨냥한 합동군사연습을 당장 중지하며 회의를 즉시 취소할것을 요구하였다.

본사기자

남조선의 어느 한 동물원에서 있었던 일이다.

우리 나라의 토종개들인 풍산개와 진도개, 그리고 삼살개가 모여앉았다.

풍산개: 《애들아, 들었니? 지금 북에서는 《개명박이 짚어죽이다.》, 《짐승만도 못한 개명박이, 개승조 매려잡자.》 하고 들고일어났다.》

진도개: 《북녘만이 아니라 중국과 일본 등 해외의 조선사람들은 물론 세계인민들도 모두 욕질한다.》

삼살개: 《잘고사니, 여기 저기에도 명박이를 풍자한 《21세기 현대판히틀러》라는 만화가 나붙고 4월 11일은 취박이를 잡는 날이라니 TV소셜이 방영되자 경찰, 검찰이 눈이 빨개서 돌아치고있어.》

풍산개: 《물론 세상사람들의 격분은 리해할수 있지만 너무한데도 있어. 리명박이, 김관진이, 정승조를 가리켜 개명박이, 개관진이, 개승조라고 하는데 그자들이 미우면 그저 밟다고 할것이지 왜 사람들이 우리까지 꺼들어 욕하는가 말야야. 처음엔 취박이, 취상통하고 취새끼에게 비기더니 말야야.》

진도개: 《그때, 개만도

못한 놈들이라고 할 때까지는 참았는데 개같은 놈이라느니, 개보다 더한 놈이라고 할 때는 정말 참았어. 우리가 아무리 못했다고 해도 우리의 피와 기름을 빨아먹는 벼룩만도 못한 놈들에게 비기만큼 그렇게까지 욕거리면 가위.》

삼살개: 《사람들이란 참 이상해. 한편으로는 우리 개들을 가리켜 령리하고 침착하고 용맹하고 민첩하고 강인하고 좋다는 소리는 다 하다가도 누를 욕질할때면 꼭 우리를 꺼들인단 말야야. 명박이나 관진, 승조를 욕하는 소리 들어봐, 허튼소리 하면 《개소리》, 《개나발》, 《개수작》, 못된짓만 하나씩 《개망나니》, 《개리리 3년가도 황보 못된다.》, 동족대결방상은 《개꿈을 꾸다.》, 미국과 일본에 찰방 붙어사니 나중엔 내 이름까지 가져다가 《삼살개》니, 《주》니...》

진도개: 《누가 아니래, 《새누리당》이 아웅다웅하는걸 봐. 명박이때문에 박근혜한테 얻어맞는다고 박리개는 불이 부어서 《시어미 역중에 개매배기 찬다》고 두들겨치고, 뻔뻔하

게 《공천》 할 사람이 없다고 비상대책위원회는 《개풍도 약에 쓰려면 없다》고 꿈 꿔지. 민심표를 얻으려 분주히 돌아치는 《새누리당》 후보들을 가리켜 《눈은 날개싸다니듯 한다》 하고, 《새누리당》의 《공약》이란 《공약》은 다 《빛좋은 개살구》니, 《개나리뵈》이라고 하지 않나.》

삼살개: 《우리 개들이야 구석구석대부터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었니. 살아서 는 사냥도 하고 집도 지켜 주고 앞 보 보는 사람들의 길잡이도 해주고, 또 죽어가는 려가죽도 남기고 영양가 높은 고기도 주고, 《단고기》, 《단고기》, 《단고기》 하면서 좋아하더니 우릴 팔아 유탕해 보면 좀 섭섭해.》

풍산개: 《그만해, 그러구 보니 그건 못되고 덜되고 악한 놈들에게 쓰는 말야야. 우리에 대한 좋은 말도 있어. 《총진》, 《의결》이란 말이 있지 않니. 너희도 들은적 있지. 옛적 평양 선교리에 있던 마을에서 주민모

너를 살해하고 도망친 살인자를 잡아 포졸들에게 넘겨준 후 주민의 무덤앞에서 숨을 거둔 우리 조상에 비까지 세워주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불타는 집에 뛰어들어 잠든 주인을 구원하고 죽은 개를 기특하게 여겨 무덤을 만들어주었다는 정성부러가 아전들을 물어죽인 개

어 그렇게 이름지었다는가 봐. 쓸개, 닭개, 령개, 반치개 등 물건이름도 사람들이 우리를 친숙하다보니 그렇게 쓰인것이 아닐까?》

풍산개: 《그러니 명백한 진 하나다. 우리 개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우리 이름을 더럽히는 리명박, 김관진, 정승조와 같은 놈들에게 우리의 본체를 보여주는가. 우리의 이름으로, 천 세계 개들의 명의로 성명을 낸다.》

진도개, 삼살개: 《그때, 우리도 본체를 보여주자.》

개들의 성명: 《리명박, 김관진, 정승조를 비롯한 역적들은 들으라. 개버릇만도 못한 네놈들때문에 우리 개들의 이름이 더럽혀지고있다. 인간세상의 리치는 다 물레도 우리 짐승세계의 단순한 리치만으로도 너희들이 어떤 악한인가를 똑똑히 알수 있다. 우리 개들도 사흘 먹여준 주인을 알아본다. 키워주고 내세워준 남편님을 물어매치는 너희들이야말로 우리 짐승만도 못한 놈들이다. 새끼는 어미를 닮고 풍심은데서는 풍이 나오는것이 단순한 자연

리치인데 조선민족의 넋과 얼을 조급도 닮지 않은 너희들은 미국산 잡종이 분명하다. 짐승도 제우리안에서는 배설하지 않고 나무땀은 떨어지면 뿌리를 덮어준다. 하지만 네놈들은 저들의 안락을 위해 미국산 소고기름을 비롯한 미국제쓰레기들을 신성한 강도에 함부로 끌어들이고 집탕말, 집탕문화로 우리 개들의 귀까지 더럽혀놓고있다. 우리 개들도 같은 종자끼리는 잡아먹지 않는다. 하지만 너희들은 동족을 원수처럼하면서 외세의 앞잡이가 되어 전쟁을 일으킬 망상만 하고있다. 고마운 6.15분에는 《풍산》과 《진도》가 함께 살수 있게 되었는데 그 6.15를 하루아침에 말아먹고 나중에는 존엄높은 북녘땅을 향해 불질을 하였다. 네놈들때문에 우리의 보금자리까지 위태롭게 되었다.

리명박, 김관진, 정승조는 명심하라.

이제는 우리도 참을수 없다. 우리 개들의 명예를 위해서도 네놈들을 절대로 그냥두지 않을것이다. 언제 어디서든 네놈들의 목줄을 물어뜯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김정력

너를 살해하고 도망친 살인자를 잡아 포졸들에게 넘겨준 후 주민의 무덤앞에서 숨을 거둔 우리 조상에 비까지 세워주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불타는 집에 뛰어들어 잠든 주인을 구원하고 죽은 개를 기특하게 여겨 무덤을 만들어주었다는 정성부러가 아전들을 물어죽인 개

어 그렇게 이름지었다는가 봐. 쓸개, 닭개, 령개, 반치개 등 물건이름도 사람들이 우리를 친숙하다보니 그렇게 쓰인것이 아닐까?》

풍산개: 《그러니 명백한 진 하나다. 우리 개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우리 이름을 더럽히는 리명박, 김관진, 정승조와 같은 놈들에게 우리의 본체를 보여주는가. 우리의 이름으로, 천 세계 개들의 명의로 성명을 낸다.》

진도개, 삼살개: 《그때, 우리도 본체를 보여주자.》

개들의 성명: 《리명박, 김관진, 정승조를 비롯한 역적들은 들으라. 개버릇만도 못한 네놈들때문에 우리 개들의 이름이 더럽혀지고있다. 인간세상의 리치는 다 물레도 우리 짐승세계의 단순한 리치만으로도 너희들이 어떤 악한인가를 똑똑히 알수 있다. 우리 개들도 사흘 먹여준 주인을 알아본다. 키워주고 내세워준 남편님을 물어매치는 너희들이야말로 우리 짐승만도 못한 놈들이다. 새끼는 어미를 닮고 풍심은데서는 풍이 나오는것이 단순한 자연



은 도움을 주었니. 살아서 는 사냥도 하고 집도 지켜 주고 앞 보 보는 사람들의 길잡이도 해주고, 또 죽어가는 려가죽도 남기고 영양가 높은 고기도 주고, 《단고기》, 《단고기》, 《단고기》 하면서 좋아하더니 우릴 팔아 유탕해 보면 좀 섭섭해.》

풍산개: 《그만해, 그러구 보니 그건 못되고 덜되고 악한 놈들에게 쓰는 말야야. 우리에 대한 좋은 말도 있어. 《총진》, 《의결》이란 말이 있지 않니. 너희도 들은적 있지. 옛적 평양 선교리에 있던 마을에서 주민모

개들의 성도

를 물어주었다는 경우 남산의 《개무덤》에 대한 이야기 말야야.》

진도개: 《옳아, 우리 할아버지한테서 들은 얘기인데 삼살개씨 백제가 망할때 사비성의 모든 개들이 왕궁을 향해 슬퍼 울었고 임진조국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진도의 개들이 일본을 향해 울며 제히 찼었다는 사실이 있었대.》

삼살개: 《예로부터 써온 간지에도 우리 개해가 있지 않나. 임진조국전쟁의 른개도 갑술년, 갑술월, 갑술일이, 갑술시에 태어났다고 하

를 물어주었다는 경우 남산의 《개무덤》에 대한 이야기 말야야.》

진도개: 《옳아, 우리 할아버지한테서 들은 얘기인데 삼살개씨 백제가 망할때 사비성의 모든 개들이 왕궁을 향해 슬퍼 울었고 임진조국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진도의 개들이 일본을 향해 울며 제히 찼었다는 사실이 있었대.》

삼살개: 《예로부터 써온 간지에도 우리 개해가 있지 않나. 임진조국전쟁의 른개도 갑술년, 갑술월, 갑술일이, 갑술시에 태어났다고 하

를 물어주었다는 경우 남산의 《개무덤》에 대한 이야기 말야야.》

진도개: 《옳아, 우리 할아버지한테서 들은 얘기인데 삼살개씨 백제가 망할때 사비성의 모든 개들이 왕궁을 향해 슬퍼 울었고 임진조국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진도의 개들이 일본을 향해 울며 제히 찼었다는 사실이 있었대.》

삼살개: 《예로부터 써온 간지에도 우리 개해가 있지 않나. 임진조국전쟁의 른개도 갑술년, 갑술월, 갑술일이, 갑술시에 태어났다고 하

를 물어주었다는 경우 남산의 《개무덤》에 대한 이야기 말야야.》

진도개: 《옳아, 우리 할아버지한테서 들은 얘기인데 삼살개씨 백제가 망할때 사비성의 모든 개들이 왕궁을 향해 슬퍼 울었고 임진조국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진도의 개들이 일본을 향해 울며 제히 찼었다는 사실이 있었대.》

삼살개: 《예로부터 써온 간지에도 우리 개해가 있지 않나. 임진조국전쟁의 른개도 갑술년, 갑술월, 갑술일이, 갑술시에 태어났다고 하

남조선은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핵화약고, 핵전쟁발원지이다

조선 반 핵 평 화 위 원 회 백 서

오는 26일과 27일 서울에서 《핵안전수뇌자회의》라는것이 열리게 된다. 세계 최대의 핵화약고이며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과 같은 극히 위험천만한 핵전쟁불장난이 광란적으로 벌어지는 남조선에서 《핵안전수뇌자회의》가 열리는데 대해 내외가 커다란 우려를 표시하고있다.

세계 최대의 핵화약고

《핵안전수뇌자회의》가 표방하는 목적은 핵무기와 핵물질의 전과방지이다. 그런데 그 1차회의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핵무기를 만들어내고 유일하게 사용하였으며 지금도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에서 열렸고 2차회의는 미국의 핵전초기지이고 세계 최대의 핵화약고인 남조선에서 열린다는것이 《핵안전수뇌자회의》가 안고있는 비극이다.

핵이라는 말도 모르던 남조선에 핵무기가 반입된것은 1950년부터이다.

특히 1950년대 말부터 미국은 《오네스트존》 전술핵미사일과 280mm 전차포, 폭격기적용 《B-61》 핵폭탄 등을 련이어 끌어들었다.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무기 반입과 배비는 부단히 증대되어 그 수가 1970년대에는 1 000여 개를 넘어섰고 1990년대에는 1 720여개에 달하였으며 베이핑도에서 세계 최대로 되었다.

남조선에 세계 최대의 핵무기 고로 만든 미국은 변변스럽게도 저들의 핵무기반입을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는 《NCND정책》을 내두고 세계여론을 우롱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쏘미랭 전이 종식되자 남조선에서 미국의 핵무기를 철거하라는 세계사회의 목소리가 더 높아 올려나왔다. 미국은 그때부터 남조선에 반입한 핵무기를 모두 철수하였다고 떠벌여왔다.

그러나 남조선강점 미군기지가 핵미사일들과 핵폭탄, 핵지뢰 등 무려 11종에 달하는 핵무기가 계속 비축되어있었다는것이 최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온 세상에 폭로되었다.

2005년 10월 9일 피뢰국회에서 제출된 《주한미군 핵수송 및 배치 현황조사》에도 남조선강원도 춘천, 경기도 오산은 물론 서울, 대전, 부산, 대구, 광주 등 주요 대도시들에 핵무기가 비축되어있다는것이 적혀있다.

2010년 12월에 공개된 미군비

패당이 우리의 최고준엄을 헐뜯는 특대형범죄를 저지르고 사실상의 선진로고를 한 마당에서 《핵안전수뇌자회의》가 벌어진다는데가 참 부당하다는 여론이 높아가고있다.

조선반핵평화위원회는 남조선에 세계 최대의 핵전과, 핵전쟁 위험지역으로 만들어놓는 미제와 남조선피뢰적패당의 죄행을 폭로하기 위해 이 백서를 발표한다.

가장 허술한 핵통제지역

미국은 아직도 남조선에서 핵통제가 엄격히 실시되는것처럼 떠들고있지만 실지에 있어서 핵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바로 남조선이다.

미국은 1956년 남조선피뢰국 《원자력협정》을 체결한 이후 남조선의 핵개발연구에 깊이 관여하고있으며 년례적으로 진행되는 합동원자력에너지협력위원회를 통해 핵개발실태도 구체적으로 장악하고있는듯이 떠들고있다.

그러나 남조선에서 핵무기개발시도는 박정희 《정권》 때부터 있었으며 그 이후 전두환이 선임되어 추진한 핵무기개발을 《대체에너지사업》이라는 미명하에 계속 이어왔다는것은 비밀이 아니다.

그리고 1993년 미국의 핵기술 전문가들이 작성한 《대량살상 무기확산위험평가》 보고서에 남조선에 핵분열기술을 보유한 대상에 올려놓는 사실에서 드러났듯이 미국이 피뢰들의 핵무기개발실태를 파악하고서도 묵인하고 있다는것도 사실이다.

미국은 남조선피뢰들의 핵무기 연료의 추출을 눈감아주었다.

1998년과 2003년 남조선의 원자로들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한 흔적이 발견되었으나 모르는척 하고 덮어씌웠다.

지난해 11월 남조선의 한 소설가가 《모자의 무기》라는 실화소설을 통해 남조선과학자들이 2000년에 우라늄농축설비를 개발하여 고농축우라늄을 3차례 전력으로 한국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 《그 후에 한국이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공식요구한다면 미국은 용할것》이라고 맞장구를 쳤다.

남조선은 미국의 이동식핵무기 고이기로 하다.

미국은 1950년대말부터 현재까지 남조선에서 《방어》와 《년례적》이라는 간판밑에 각종 복합핵전생연습들을 벌여놓고 초대형핵항공모함과 이지스순양함, 핵잠수함 등 방대한 핵공격수단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었다.

핵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은 한 개 지역을 핵으로 초토화시킬수 있는 강력한 핵무기를 탑재하고 있다. 비밀해제된 미국방성의 검열보고서에 의하면 미핵잠수함에 탑재된 《트라이던트》 전략핵미사일이 한 발사명령이 내려 후 13분이면 발사가 가능하다고 한다.

미국은 해마다 핵폭탄적재가 가능한 《F-15E》, 《F-16》 전투폭격기들을 순환배치형태

로 남조선에 끌어들이고있으며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는 《F-16CM》, 《F-16C》 전투폭격기 24대를 군산기지에 추가로 끌어들였다.

2009년 10월 22일 미국과 피뢰들은 41차 년례안보협의회에서 《선언적수준》에 있던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보호를 미분토가 핵공격당했을 때 똑같은 방식으로 상대방을 타격한다는 《확장된 억제력》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임의의 순간에 남조선에 방대한 핵무기를 추가로 끌어들이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이것은 남조선이 미국의 거대 이동식핵무기고, 핵전초기지로 되고있다는것을 실증해준다.

가장 위험한 핵전쟁발원지

미국은 아직도 남조선에서 핵통제가 엄격히 실시되는것처럼 떠들고있지만 실지에 있어서 핵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바로 남조선이다.

미국은 1956년 남조선피뢰국 《원자력협정》을 체결한 이후 남조선의 핵개발연구에 깊이 관여하고있으며 년례적으로 진행되는 합동원자력에너지협력위원회를 통해 핵개발실태도 구체적으로 장악하고있는듯이 떠들고있다.

그러나 남조선에서 핵무기개발시도는 박정희 《정권》 때부터 있었으며 그 이후 전두환이 선임되어 추진한 핵무기개발을 《대체에너지사업》이라는 미명하에 계속 이어왔다는것은 비밀이 아니다.

그리고 1993년 미국의 핵기술 전문가들이 작성한 《대량살상 무기확산위험평가》 보고서에 남조선에 핵분열기술을 보유한 대상에 올려놓는 사실에서 드러났듯이 미국이 피뢰들의 핵무기개발실태를 파악하고서도 묵인하고 있다는것도 사실이다.

미국은 남조선피뢰들의 핵무기 연료의 추출을 눈감아주었다.

1998년과 2003년 남조선의 원자로들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한 흔적이 발견되었으나 모르는척 하고 덮어씌웠다.

지난해 11월 남조선의 한 소설가가 《모자의 무기》라는 실화소설을 통해 남조선과학자들이 2000년에 우라늄농축설비를 개발하여 고농축우라늄을 3차례 전력으로 한국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 《그 후에 한국이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공식요구한다면 미국은 용할것》이라고 맞장구를 쳤다.

남조선은 미국의 이동식핵무기 고이기로 하다.

미국은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하겠다》는 한국의 희망 등을 고려하겠다.》고 하면서 올해에 남조선과 《원자력협정》 개정협상까지 벌여놓았다.

미국은 핵물질뿐만아니라 핵무기제조기술도 적극 뒤받침해주었다.

미국은 남조선의 핵무기개발에 전용될수 있는 민감한 기술들을 피뢰들과 체결한 《과학기술협정》의 미명하에 체계적으로 이전해주고 단지 그 비밀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한다는 다짐을 받았다.

미국은 1982년 벤즈 앤드로회사를 내세워 남조선과 고속중식 로기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를 도와주도록 하였으며 콤퍼스천 엔지니어링회사는 남조선에 원자력 설계 및 모의시험, 제작 등에 리용되는 201건의 기술자료들을 넘겨주었다.

미국은 남조선이 핵무기운반수단을 보유하는것도 도와주고 있다.

미국은 1970년대에 핵무기를 탑재할수 있는 《오네스트존》, 《나이코 허클레스》, 《호크》 미사일들을 피뢰군에 넘겨주었으며 1979년에는 《미사일협정》을 체결하여 미사일을 개발할수 있는 길도 열어주었다.

그후 2001년 《미사일협정》을 개정하여 란도미사일의 사거리를 180km에서 300km로 늘이도록 해주었으며 최근에는 1 000km로 늘어달라는 피뢰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협정개정내용도 벌리고 있다.

남조선원자력연구소 소장 장인순을 비롯한 피뢰핵전문가들은 현재 남조선의 핵폭탄제조능력은 세계 10위로서 3개월이면 핵무기 1개를 만들어낼수 있으며 농축우라늄추출기술도 《세계적수준》이라고 공개적으로 떠들어대고있다.

이러한 남조선에서 그 무슨 핵무기와 핵물질의 전과를 방지하는 《핵안전수뇌자회의》를 벌려놓는다는것은 국제사회를 우롱하는 대협잡극에 지나지 않는다.

가장 위험한 핵전쟁발원지

조선전쟁을 도발한지 7주후인 1950년 8월 중순에 핵무기를 남조선에 처음으로 배치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1950년 11월 당시 미국대통령 트루먼은 기자회견에서 《조선전쟁에 원자폭탄사수를 적극 검토하고있다.》고 떠벌였고 미국군중사령관 맥아더는 그해 12월 《북중경정지역에 원자탄 30~50개를 투하할 계획이 있다.》고 핵공갈에 나섰다.

1968년 1월 조선전쟁에 불발침

입한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가 나포되었을 때 미행정부는 항공모함과 구축함 등을 동원하여 우리 공화국을 굴복시켜보려고 날뛰다가 실패하자 핵공격을 검토하는 늑골까지 벌리었다.

《푸에블로》호사건이 미국의 항복으로 결말을 본 후 4개월만인 1969년 4월에 미군정찰기 《EC-121》이 우리의 영공에 침투하였다가 격추당하게 되자 미국은 또 다시 핵공격을 검토하였다.

당시 전라북도 군산미공군기지에서 전투기조종사로 근무하였던 미군비행사 찰스는 조선반도 군사사 북의 공군기지에 핵공격을 가하는것이 자기의 임무였고 자기가 조종하던 전투기 《F-4》에는 히로시마에 투하된 핵폭탄보다 파괴력이 20배 이상 강한 《B-61》 핵폭탄이 탑재되어있었다고 실토했다.

이 핵전쟁계획은 미국이 월남 전쟁의 수렁에 빠져 2차 조선전쟁을 치를수 없다는 판단으로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지만 이후 닉슨 행정부는 류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25개의 비상계획을 작성하였으며 그중 《자유락하》라는 작전명으로 된 계획은 조선에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것이었다.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기 위한 미국의 핵전쟁도발책동은 1976년부터 피뢰들과 함께 해마다 벌려놓는 《팀 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을 통해 더욱 포괄되었다.

이 훈련에는 핵무기탑재가 가능한 전투폭격기 《F-16》과 장거리전략폭격기 《B-1B》 등이 동원되었고 핵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도 참가하였다.

또한 북의 야전포전투력을 초토화시킨다는 명분으로 원자포탄련도 수시로 진행하였다.

미국은 1994년 10월 체네바조 미합의에서 조선에 대한 핵위협공갈을 그만둔다고 약속하였지만 그 이후에도 대조선핵공격훈련을 계속하였다.

조선반도에서의 핵전쟁위험은 미국에 부위행정부가 등장하면서 더욱 커졌다.

부위행정부는 핵무기사용을 《보복》에 한정하지 않고 유사시 이른바 《악의 축》 국가들에 먼저 사용할수 있다는 《부위 독트린(교리)》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2002년 《핵태세검토보고서》에서 우리 공화국을 최우선적인 핵공격대상으로 지정하였으며 이후 오바마행정부는 《핵무기를 세계》를 떠들어대면서 도 역시 공화국을 핵선제공격대상의 범주에 넣었다.

현재까지 미군과 남조선피뢰들은 조선전쟁을 구대에도 불구하고 조선반도에서의 핵전쟁위험은 미국에 부위행정부가 등장하면서 더욱 커졌다.

부위행정부는 핵무기사용을 《보복》에 한정하지 않고 유사시 이른바 《악의 축》 국가들에 먼저 사용할수 있다는 《부위 독트린(교리)》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2002년 《핵태세검토보고서》에서 우리 공화국을 최우선적인 핵공격대상으로 지정하였으며 이후 오바마행정부는 《핵무기를 세계》를 떠들어대면서 도 역시 공화국을 핵선제공격대상의 범주에 넣었다.

현재까지 미군과 남조선피뢰들은 조선전쟁을 구대에도 불구하고 조선반도에서의 핵전쟁위험은 미국에 부위행정부가 등장하면서 더욱 커졌다.

부위행정부는 핵무기사용을 《보복》에 한정하지 않고 유사시 이른바 《악의 축》 국가들에 먼저 사용할수 있다는 《부위 독트린(교리)》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2002년 《핵태세검토보고서》에서 우리 공화국을 최우선적인 핵공격대상으로 지정하였으며 이후 오바마행정부는 《핵무기를 세계》를 떠들어대면서 도 역시 공화국을 핵선제공격대상의 범주에 넣었다.

《작전계획 5027》, 《작전계획 5029》, 《작전계획 5030》, 《작전계획 5012》, 《작전계획 8044》, 《작전계획 8022》, 《작전계획 8010》 등 이루어질수 없는 핵전쟁계획들을 작성하였으며 그것은 《포커스 렌즈》, 《독수리》, 《울지 포커스 렌즈》, 《팀 스피리트》, 《련합전시중원연습》, 《키 리졸브》, 《울지 프리덤 가디언》 등 각종 핵전쟁연습들에 의해 련마되어왔다.

미국은 핵전쟁도발위험은 남조선에 극악한 호전광인 리명박역적패당이 집권하면서 더욱 현실화되고있다.

리명박패당은 집권 첫해인 2008년 《련합전시중원연습》명칭을 《키 리졸브》로 바꾸어 이전처럼 《독수리》 훈련과 계속 병행하여 감행하면서 《작전계획 5027》보다 위험한 핵전쟁계획들인 《작전계획 5029》, 《작전계획 5012》를 가동하였다.

《천안》호침몰사건과 연평도 포격전이 일어났을 때에는 《북을 타격하지 못한것이 한이다.》고 체치면서 조선반도수역에 미국의 핵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을 끌어들이고 남조선에 있는 핵타격수단들을 다 가동하여 우리를 공격해보려고 미칠날뛰었다.

또한 2011년 11월에는 미국 네브라스카주에 있는 미전략사령부에서 피뢰들과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을 처음으로 벌려놓고 우리를 핵으로 선제공격하는 《맞춤 식억제전략》을 숙달하는 광기도 부리었다.

민족이 대국상을 당했을 때 그것을 기회로 우리 공화국을 타격하기 위한 군사적공동을 부린 리명박역적패당은 이후 또다시 우리의 최고준엄을 모독하였으며 지금도 남조선에서 미군과 함께 각종 합동군사연습을 미친듯이 감행하고있다.

제반 사실은 미국과 리명박역적패당이야말로 핵전쟁광신자들이며 남조선은 그야말로 21세기 핵전쟁발원지로 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러한 핵전쟁광신자들이 남조선에서 그 무슨 《핵안전수뇌자회의》를 벌려놓는다면 그것은 저들이 벌리려는 핵전쟁을 합리화하고 일단 유사시 조선전쟁에 추종국가들을 끌어넣기 위한 핵전쟁도발판이 될것이다.

이것이 바로 서울 《핵안전수뇌자회의》의 본질이다. 민일 미국과 리명박패당이 우리의 거둬되는 경에도 불구하고 조선반도정세를 구대에도 몰아가는 경우 그 후파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도발자들이 지게 될것이다.

주제 101(2012)년 3월 14일 평 양

나이제리아인사

《핵안전수뇌자회의》 개최책동 배격

나이제리아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위원장 엠. 엠. 알라한이 남조선당국의 《핵안전수뇌자회의》 개최책동을 규탄하여 2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남조선당국이 서울에서 그 무슨 《핵안전수뇌자회의》라는것을 개최한다고 떠들고있다. 미국의 핵전초기지이며 세계 최대의 핵화약고인 남조선에서 핵안전문제를 공식요구한다면 미국은 용할것이라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대우기 놀라운것은 내외여론의 우려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27일부터 방대한 최신핵전생장비들을 동원하여 대규모의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고있는 미국과 남조선이 핵배를 강하게 풍

방송사 언론인들 부당한 탄압에 항의

지금 남조선언론사들에서 《정권》의 횡포한 언론장악책동을 반대하는 항의운동이 줄기차게 전개되고있는 가운데 《MBC》 방송로조와 기자회, 영상기

업과 제작거부투쟁에 나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방송사 보도국 기자 166명이 일제히 들고일어나 사측의 탄압조치를 전제 언론인들과 공평보도에 대한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로 규탄

하였다. 그들은 항의의 표시로 모두 사직할것이라고 언명하였다. 한편 《MBC》 방송로조는 성명을 발표하여 방송이 사장에게 투락당하는것을 더이상 용납할수 없다고 하면서 그가 퇴진할 때까지 파업을 계속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언론의 자유를 구속하는 당국을 규탄하는 남조선인민들



본사기자

반역 《정권》의 판교죄악을 고발한다 (5)

경제와 민생을 파탄시킨 반역 《정권》

리명박이 집권할 당시 남조선사람들의 관심사중의 하나는 죽어가는 경제를 살리는 문제였다. 《대통령선거》 때 경제를 아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크게 나왔던것은 그때뿐이었다.

그때 《대통령후보》로 나선 리명박은 《경제를 살리는 일》이 자기의 《최우선과제》라느니, 《경제대통령》이 되겠다는니 뉘나 하면서 마치도 남조선경제를 위기에 건져내기라도 할것처럼 떠들며 권력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리명박은 《경제살리기》 간판을 걸고 남조선 경제를 완전히 파탄시켰으며 민생을 최악의 지경에 몰아넣었다.

리명박이 《경제살리기》의 미명하에 매달린 시책에서 대표적인것은 재벌중심의 경제시책이었다.

그는 재벌들을 《경제살리기》의 주역으로 내세우고 《금산보리완화》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땅값과 금리인하, 《비정규직법》 등으로 그들에게 특혜와 특권을 주었다.

남조선고용시장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의 련이 파산은 날로 심각해지고있는 실업문제를 더욱 악화시켜 460여만명의 실업사태를 몰아왔다.

한중도 못되는 특권층과 재벌들에게 특권과 특혜만

을 주는 남조선당국의 반인민적경제정책은 사회의 양극화와 부익부, 빈익빈을 더욱 심화시켰다.

1999년 5.7배였던 최고 부유층의 소득과 최하층의 소득차이가 리명박이 집권한 이듬해인 2009년에 와서 14.5배, 지난해에는 29배 이상으로 벌어졌다.

최저생활비도 벌지 못하는 남의 돈이 없는 살아갈수 없는 가정은 2009년에 191만세대에 359만명에 달하였다.

남으로 뛰어오르는 물가는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악화시키고있다.

대표적으로 인민들의 소비지출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식료품물가는 4년동안 29.9% 상승하였는데 이것은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상승률(15.2%)보다 14.7%나 높은 것이다.

올해에 들어와서도 살인적인 물가폭등은 계속되어 식료품과 석유류의 물가상승률은 각각 9.1%, 13.3% 폭등하여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몰락시키고있다.

물가가 하늘높은줄 모르며 경쟁경쟁 뛰여오르는 속

민을 배신하고 그들에게 불행과 고통만을 들쭉운 리명박당당의 반역적죄행은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본사기자 주광일